

2025.09.19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IBKS 유틸리티 In-Depth

해상풍력이라 쓰고 해저케이블이라 읽는다

: ESG 보고서

유틸리티/통신/음식료 김태현

02) 6915-5658

kith0923@ibks.com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ONTENTS

해저케이블, 에너지 전환의 필수재.....	3
AI와 신재생이 견인하는 해저케이블 수요	4
통신용 해저케이블 시장 현황 및 전망	7
전력용 해저케이블 시장 현황 및 전망	12
해저케이블 밸류체인	21
기업분석.....	31
대한전선 (001440).....	32
LS에코에너지 (229640).....	39
LS마린솔루션 (060370).....	47

해저케이블, 에너지 전환의 필수재

글로벌 신재생 가속화
→ 해상풍력 확대
→ 해저케이블 수요 증가

최근 글로벌 전력·에너지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재생에너지 가속화와 송전망 확충이다. 특히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확대와 국가 간 전력 연계 프로젝트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글로벌 해상풍력 신규 설치의 연평균 성장률(2024~30E CAGR)은 27.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장기간에 걸쳐 해저 전력케이블 수요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전력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강조돼

국내에서도 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력 공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건설에 필요한 긴 소요 기간과 부지 문제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력 믹스에서 신재생의 역할이 커지고, 추진 중인 해상풍력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법(제도적
기반)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물리적 인프라
기반)는 국내 해상풍력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될 것

내년 3월 26일부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정부가 직접 후보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입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련 프로젝트 추진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기준으로 2.3GW인 풍력 설비를 2030년 18.3GW, 2038년 40.7GW까지 확대하고, 서해안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초고압 직류송전) 에너지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송전 프로젝트도 병행하고 있어 국내 해저케이블 수요 역시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전력용 해저케이블
수요 확대에 따른 국내
업체 수혜 기대

시장 구조 측면에서도 글로벌 통신용 해저케이블 시장은 SubCom(미국), ASN(프랑스), NEC(일본) 3사가 과점하고 있지만, 전력용 해저케이블은 해상풍력 확대와 맞물려 국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외 사업 기회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LS전선, 4월 미국 최대
규모 HVDC 해저케이블
공장 착공

실제로 LS전선은 동해 HVDC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 증설에 이어, 2027년 3분기 완공을 목표로 미국 최대 규모의 HVDC 해저케이블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전선은 HVDC 올해 6월 해저케이블 1공장 2단계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9월에는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2공장 1단계 착공에 들어갔다. 또 최근 해저케이블 시공업체 자회사 편입으로 제조부터 포설·유지보수까지 밸류체인을 확대한 점도 긍정적이다.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 및 포설선 확보

LS마린솔루션,
13,000톤급 초대형
포설선 발주

LS마린솔루션은 케이블 적재 중량 13,000톤급 초대형 포설선 발주와 장비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포설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규 포설선 운항 시점이 LS전선의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의 제품 양산 예상 시점과 맞물리는 2028년 상반기부터 그룹 차원의 글로벌 턴키 수주 대응 역량이 유의미하게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 베트남 전선 시장 1위인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국영기업과 합작으로 HVDC 해저케이블 공장 설립을 추진 중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베트남이 동남아 해상풍력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른 중장기적 수혜가 예상된다.

LS에코에너지, 베트남에
해저케이블 공장 설립
투자 검토

시와 신재생이 견인하는 해저케이블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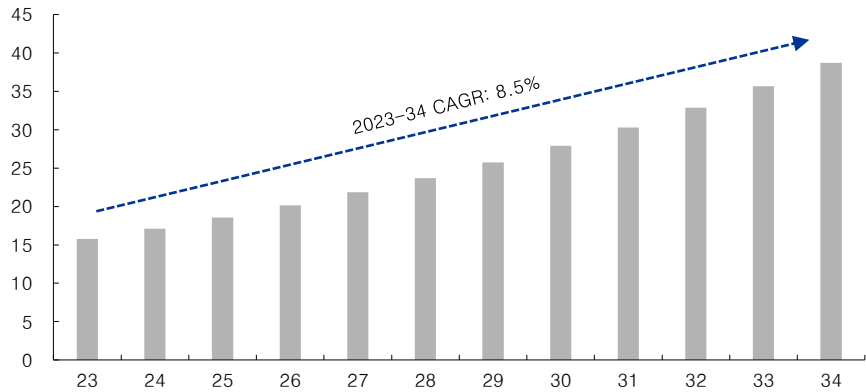
디지털 ·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 연결고리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물리면서 해저케이블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

해저케이블은 해저 지반에 매설되어 대륙 · 국가 · 섬을 연결하며,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전력을 송전하는 장거리 기반 인프라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국가 간 에너지 안보 협력, 전력 및 디지털 공급망 안정화라는 글로벌 정책 기조와 맞물리며 해저케이블 수요는 구조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규모는 연평균 8.5% (2023~34E CAGR) 성장이 전망되며, 2034년에는 약 387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림 1. 해저케이블 시장 규모 및 전망

(십억달러)



자료: Precedence research, IBK투자증권

통신용 해저케이블,
총 150만km 글로벌
디지털 대동맥 역할

해저케이블은 크게 통신용(Submarine Fiber Optic Cable)과 전력용(Submarine Power Cable)으로 구분된다. 통신용 해저케이블은 대륙과 국가를 연결하며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광섬유 기반 인프라로, 현재 전 세계 해저에는 약 550~600개의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며 총 길이는 약 150만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성 통신 대비 지연 속도, 전송 용량, 장기 운영 비용 측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을 보인다.

전력용 해저케이블, 유럽
중심의 전력망 연계 활발,
재생에너지 불균형 해소

전력용 해저케이블은 국가 간 전력거래, 해상풍력 발전소와 내륙 송전망 연계, 도서 지역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설치된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구축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이 국가 간 전력 계통 연계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국가 간 송전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해 해상풍력 발전 전력을 독일과 네덜란드로 송전하거나, 북유럽 수력발전 전력을 남유럽으로 공급하는 사례에서 해저케이블이 활용되고 있다.

표 1. 통신용 해저케이블과 위성 통신 비교

구분	해저케이블	위성통신
데이터 전송 방식	해저에 설치된 광섬유를 통해 빛(광신호)으로 데이터를 전송	인공위성에서 전파(무선 신호)를 통한 송수신
속도 (지연 시간)	매우 낮음 (약 20~60ms 수준)	상대적으로 높음 (GEO 위성 기준 약 600ms 전후)
대역폭 (데이터 처리 용량)	매우 큼(수 Tbps 이상)	제한적(수 Gbps 수준)
기상 영향	거의 없음	비, 구름 등 외부 요인에 민감
적합 용도	국가 간 대용량 트래픽,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간 전송, 스트리밍 등	지상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 (산간, 도서, 사막 등), 재난 지역 긴급 통신
구축 비용	초기 비용 높으나 대용량 및 장기 운영 시 효율적	단일 지역 구축은 저렴하나, 광범위 네트워크 구성 시 고비용
신뢰성 및 안정성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20년 이상), 장애 시 예비 회선으로 전환 가능	위성 고장 시 복구 어려움, 수명 제한(보통 5~15년), 궤도 밀집 문제 발생 가능
지리적 커버리지	케이블 포설 경로 중심의 연결망 (주로 대륙 간, 해안 간 핵심 인프라)	전 지구적 범위에서 연결 (지형 · 인프라 제약없는 광범위한 커버리지)

자료: 국내외 언론, IBK투자증권

주: 위성통신은 전통적인 GEO 위성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LEO 기반 위성인터넷(Starlink, OneWeb 등)과는 일부 성능 차이 존재

표 2. 통신용 해저케이블과 전력용(송전용) 해저케이블 비교

구분	통신용 해저케이블	전력용 해저케이블
주요 목적	데이터 · 음성 · 영상 등 디지털 신호 전송	전력(전기 에너지) 전송
전송 방식	광섬유를 통한 빛 신호	고압직류(HVDC) 또는 고압교류(HVAC) 방식
전송 거리	수천 km 이상 가능 (대륙 간 연결)	HVDC는 수천 km 이상, HVAC는 수십~수백 km
주요 적용 사례	인터넷, 스트리밍, 국제통신망, 클라우드 서비스	국가 간 전력망 연계, 해상풍력 송전, 도서 전력공급
주요 공급사	SubCom, NEC, ASN 등	Nexans, Prysmian, NKT, LS Cable & System 등
주요 사용자	글로벌 통신사, 클라우드 기업 (예: Google, Meta, Microsoft)	전력회사, 국가 전력망 운영기관 (예: KEPCO, TenneT)
운영 기간	평균 20~25년	30년 이상 가능

자료: 국내외 언론, IBK투자증권

HVDC 기술의 활용도
확대 추세

특히 전력용 해저케이블의 경우, 초고압 교류송전(HVAC: High Voltage Alternating Current)은 전송 거리가 길어질수록 무효전력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수백 km 이상 장거리에서 안정적인 송전이 요구되는 국가 간 전력 연계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는 초고압 직류송전(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기술의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국가 간 전력 연계에
필수적인 HVDC
해저케이블

대표적인 초고압 직류송전 프로젝트로는 Viking Link(덴마크-영국, 765km/1,400MW, 2023년), North Sea Link(영국-노르웨이, 720km/1,400MW, 2021년), BritNed(영국-네덜란드, 260km/1,000MW, 2011년), NorNed(노르웨이-네덜란드, 580km/700MW, 2008년), SwePol Link(스웨덴-폴란드, 254km/600MW, 2000년) 등이 있다. 이는 유럽이 국가 간 전력망 연계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HVDC 해저케이블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 전력용 해저케이블, 초고압 직류송전(HVDC)과 초고압 교류송전(HVAC) 비교

구분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AC(High Voltage Alternating Current)
전류 방식	직류	교류
송전 손실	낮음	높음
송전 거리	초장거리(100km 이상, 수천 Km 가능)	중장거리(일반적으로 50~100km)
절연체 종류	*MI, *XLPE 모두 사용	주로 XLPE 사용
도체 구성	일반적으로 단심(single-core) 구조	일반적으로 3심(three-core) 구조
설치 및 유지 비용	초기 구축비용 높으나 장거리 효율 우수	설치비 저렴하나 거리·용량 제약
중계 설비	AC-DC 변환소, DC-AC 재변환소 필요	별도 변환소 없이 계통 연계 가능
주요 용도	국가 간 전력망 연계, 초장거리 해상풍력	도서지역 연결, 근거리 해상풍력 내부망 등

자료: IBK투자증권

주1: XLPE (Cross-Linked Polyethylene): 경량·내열 특성이 우수하고 설치가 간편하여 중단거리 적용에 유리

주2: MI(Mass Impregnated): 높은 신뢰성과 내열성 보유하여 고압·장거리 전송에 적합

그림 2. Viking Link(덴마크-영국, 765km/1,400MW)



자료: POWERmag, IBK투자증권

그림 3. North Sea Link(영국-노르웨이, 720km/1,400MW)



자료: Nationalgrid, IBK투자증권

통신용 해저케이블 시장 현황 및 전망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지탱하는 주요 해저케이블 거점

1850년
:영국-프랑스 최초 해저 전신 케이블 설치

1858년
:최초로 대륙을 연결하는 미국-영국 대서양 해저 전신 케이블 개통(단명)

1866년
:대서양 해저 전신 케이블 재도전 성공

19세기 말
:영국 주도로 전세계 해저 전신망 확장

1956년
:대서양 최초 해저 전화 케이블(TAT-1) 개통

1988년
:최초의 광섬유 해저케이블 (TAT-8) 설치, 대용량 데이터 전송 시대 개막

1990~2000년대
:글로벌 인터넷 확산, 광섬유 케이블 대규모 투자

2010년 이후
:구글, 메타 등 빅테크의 해저케이블 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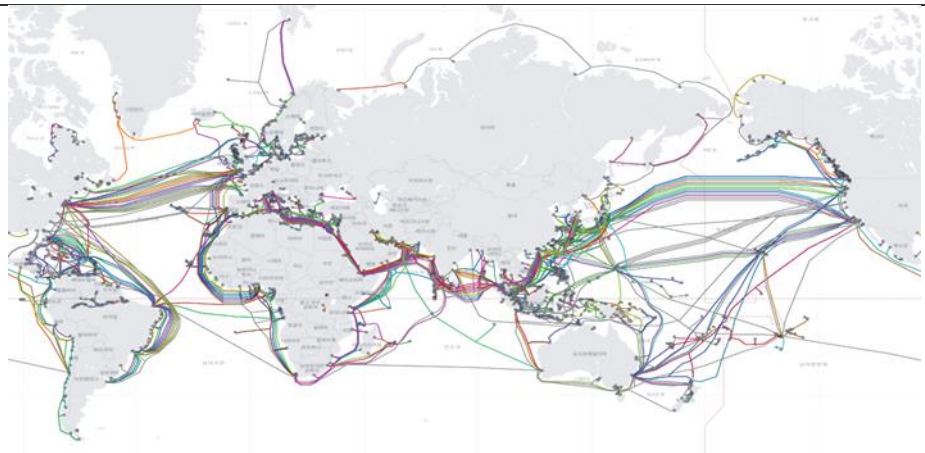
글로벌 통신용 해저케이블은 대부분 주요 해저 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이집트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기능한다. 다수의 해저케이블이 홍해에서 이집트를 횡단해 지중해로 이어지는 경로를 거치는데, 이 구간은 유럽과 아시아 간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의 약 17%가 통과하는 핵심 축이다. 그러나 케이블 경로가 제한된 지점에 집중되어 있어 단일 장애 발생 시 글로벌 통신망에 심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경로 다변화 및 중복 회선 확보를 통해 네트워크 복원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인도와 중동,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저케이블 경로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두 국가는 세계적인 해상 교통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을 끼고 있어 글로벌 해저케이블의 자연스러운 중간 기착지로 기능한다. 특히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데이터센터 집적지이자 주요 랜딩 포인트가 집중된 지역으로, 국제 통신용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아태 지역을 북미와 호주로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의 주요 허브다. JUPITER, FASTER, HKA 등 복수의 아시아-북미 및 인트라 아시아 케이블이 집결하는 교차점으로, 지진 등 자연재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대체 경로 확보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서부,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 역시 글로벌 해저케이블의 핵심 허브다. 이들 국가는 대서양 및 태평양 횡단 케이블의 주요 종착지로서, 전 세계 콘텐츠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며 데이터 흐름의 안정성과 전송 속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그림 4. 글로벌 통신 해저케이블 현황



자료: Submarinecablemap, IBK투자증권

글로벌 통신용 해저케이블 시장의 큰손은 빅테크

통신사에서 빅테크로,
글로벌 해저케이블 판도
변화

2010년대 이전까지 통신용 해저케이블은 주로 글로벌 통신사 중심의 국제 컨소시엄이 주도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유튜브·SNS·클라우드 확산으로 급증한 트래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변화했다. 이들 기업은 컨소시엄 참여를 넘어 케이블 내부의 일부 회선을 독점 소유하거나 케이블 전체를 단독 소유하는 방식으로, 트래픽 경로·용량·보안을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주요 대양 횡단 노선에서 콘텐츠 사업자의 대역폭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메타, 2Africa(45,000km)에
이은 초대형 프로젝트
Waterworth(50,000km)
추진 계획 밝혀

일례로 메타는 아프리카·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2Africa를 주도하고 있다. 완공 시 약 45,000km 규모로 설계됐으며, 2024년 6월 남아프리카-케냐 구간이 우선 개통됐다. 올해 2월에는 Waterworth 프로젝트(착공일정 미정)를 발표하며, 미국·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대륙을 직접 연결하는 약 50,000km 길이의 대규모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AI·스트리밍 수요 확대로
통신용 해저케이블 연평균
6.5% 성장 전망

태평양, 대서양, 아시아 주요 구간에는 이미 대륙 간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망이 상당 부분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급증으로 인해 추가적인 증설 및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통신용 해저케이블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4년 38.7억 달러에서 2034년 70.6억 달러로 연평균 6.5% 성장이 예상된다.

표 4. 2010년 중반 이후 빅테크가 참여한 주요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개통 시점	참여 기업	케이블명 (구간)	특징
2016	Google	FASTER (일본-미국)	태평양 컨소시엄 케이블로 초기 설계 용량은 60Tbps, 길이 약 11,629km
2018	MS·Meta	MAREA (미국 버지니아-스페인 빌바오)	대서양 횡단 케이블로 초기 설계 용량은 160Tbps, 길이 약 6,600km
2021	Google	Dunant (미국-프랑스)	Google이 단독 소유한 대서양 횡단 프라이빗 해저케이블로, 설계 용량은 250Tbps, 길이는 6,600km
2024 (일부개통)	Meta	2Africa (아프리카-유럽-중동-아시아)	총 길이 약 45,000km로 세계 최장급, 보타폰, 차이나모바일 등 통신사와 인프라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 설계 용량은 180Tbps 이상
2022	Google	Equiano (포르투갈-나이지리아-토고-나미비아-남아공)	서아프리카 첫 대규모 국제 케이블로, Google 단독 소유, 설계 용량은 144Tbps 이상, 길이는 약 15,000km
2022	Google	Grace Hopper (미국-영국-스페인)	Google이 단독 소유한 대서양 횡단 프라이빗 케이블로 길이는 6,300km
2022	Meta, MS	Amitié (미국 매사추세츠-영국-프랑스)	Meta, MS가 핵심 투자자로 참여, 설계 용량은 400Tbps, 길이는 6,800km
2025 (예정)	Google, Meta	Apricot (일본-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싱가포르-괌)	Meta와 Google이 공동 주도했으며, 길이는 12,000km
2025 (예정)	Google	Blue-Raman (지중해 Blue: 이탈리아-그리스-이스라엘 / Raman: 요르단-사우디-오만-인도)	이집트 육상 관문 우회 설계 (Blue+Raman 연계), 설계 용량은 200Tbps 이상, 길이는 약 8,000km 추정

자료: 각사, 국내외 언론, IBK투자증권

주: Tbps는 데이터 전송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 1Tbps는 1초에 1조 비트를 전송한다는 의미이며, 100Tbps 해저케이블은 이론적으로 매초 12.5TB를 전송할 수 있음

국내는 통신 3사의 투자 주도 흐름 지속

한국 연결 통신용
해저케이블 16개
(운영 13개, 건설 3개)

국내에서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통신용 해저케이블 투자를 주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에 연결된 통신용 해저케이블은 총 16개로 집계되며, 이 중 13개는 운영 중이고 3개는 건설 단계에 있다. 용도별로는 섬과 내륙을 연결하는 케이블이 4개, 글로벌 간 연결을 담당하는 케이블이 12개로 구분되며, 특히 글로벌 트래픽을 처리하는 케이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내 해저망의 중심은
부산

국내 착륙 지점별로 살펴보면, 전체 해저케이블의 약 53%가 부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글로벌 연결 해저케이블만 놓고보면 그 비중은 80% 이상에 달한다. 국내 해저케이블이 부산에 집중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중국·일본·대만 등 주요 국가와 인접해 아시아 해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KT를 비롯한 주요 통신사들의 케이블 착륙국과 백본망 인프라가 이미 부산에 구축되어 있어, 신규 해저케이블 역시 자연스럽게 부산을 중심으로 설계·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주요 데이터 허브 중
하나로 기능

국가별 연결 현황을 보면, 한국은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중국, 일본, 대만과의 해저케이블 연결이 특히 밀접하다. 이는 한국이 동북아시아 데이터 흐름의 핵심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주요 경유지와의 연결도 일부 확보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동북아 중심의 구조가 뚜렷하다.

그림 5. 대한민국 연결 통신 해저케이블 현황



자료: Submarinecablemap, IBK투자증권

표 5. 국내 연결 통신 해저케이블 현황

케이블명	Jeju-Mainland 2	Jeju-Mainland 3	Ulleung-Mainland 2
구분	국내	국내	국내
RFS(Ready for Service)	1996	2000	2016
Cable Length	191 km	236 km	164 km
Owners	KT	KT	KT
Suppliers	NEC	NEC	-
Landing Points	Goheung, South Korea Goseong-ri, South Korea	Goseong-ri, South Korea Mijo-myeon, South Korea	Hosan-ri, South Korea Ulleung, South Korea
케이블명	Jeju-Udo	FLAG Europe-Asia (FEA)	
구분	국내	글로벌	
RFS(Ready for Service)	2023	1997	
Cable Length	3 km	28,000 km	
Owners	KCTV Jeju Broadcasting, KT, LG Uplus, SK Telecom	FLAG	
Suppliers	-	SubCom	
Landing Points	Goseong-ri, South Korea Udo, South Korea	Lantau Island, China Nanhui, China Alexandria, Egypt Port Said, Egypt Suez, Egypt Mumbai, India Palermo, Italy Songkhla, Thailand Porthcurno, United Kingdom	Miura, Japan Aqaba, Jordan Penang, Malaysia Jeddah, Saudi Arabia Geoje, South Korea Estepona, Spain Satun, Thailand Fujairah, United Arab Emirates
케이블명	FLAG North Asia Loop/ REACH North Asia Loop	APCN-2	
구분	글로벌	글로벌	
RFS(Ready for Service)	2001	2001	
Cable Length	9,504 km	19,000 km	
Owners	FLAG, PCCW, Telstra	AT&T, BT,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unghwa Telecom, HKBN, KDDI, KT, LG Uplus, NTT, Orange, PCCW, PLDT, Singtel, Singtel Optus, Softbank Corp, Starhub, Tata Communications, Telekom Malaysia, Telstra, Verizon, Vodafone	
Suppliers	ASN, Fujitsu	NEC	
Landing Points	Tong Fuk, China Wada, Japan Busan, South Korea Toucheng, Taiwan	Chongming, China Lantau Island, China Shantou, China Chikura, Japan Kitaibaraki, Japan	Cherating, Malaysia Batangas, Philippines Katong, Singapore Busan, South Korea Tanshui, Taiwan
케이블명	Korea-Japan Cable Network (KJCN)	EAC-C2C	
구분	글로벌	글로벌	
RFS(Ready for Service)	2002 March	2002 November	
Cable Length	500 km	36,500 km	
Owners	KT, NTT, QNet, Softbank Corp	Telstra	
Suppliers	ASN, Fujitsu	ASN, KDD-SCS, SubCom	
Landing Points	Fukuoka, Japan Kitakyushu, Japan Busan, South Korea	Chung Hom Kok, China Nanhui, China Qingdao, China Tseung Kwan O, China Aijigaura, Japan Chikura, Japan Shima, Japan Batangas, Philippines	Cavite, Philippines Changi North, Singapore Changi South, Singapore Busan, South Korea Shindu-Ri, South Korea Fangshan, Taiwan Pa Li, Taiwan Tanshui, Taiwan

케이블명	Trans-Pacific Express (TPE) Cable System	Asia Pacific Gateway (APG)	
구분	글로벌	글로벌	
RFS(Ready for Service)	2008 August	2016 November	
Cable Length	17,968 km	10,400 km	
Owners	AT&T,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unghwa Telecom, KT, NTT, Verizon	China Mobile,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unghwa Telecom, KT, LG Uplus, Meta, NTT, National Telecom, Starhub, TIME dotCom, VNPT International, Viettel Corporation	
Suppliers	SubCom	NEC	
Landing Points	Chongming, China	Chongming, China	Changi South, Singapore
	Qingdao, China	Nanhui, China	Busan, South Korea
	Maruyama, Japan	Tseung Kwan O, China	Toucheng, Taiwan
	Geoje, South Korea	Maruyama, Japan	Songkhla, Thailand
	Tanshui, Taiwan	Shima, Japan	Danang, Vietnam
	Nedonna Beach, OR, United States	Cherating, Malaysia	
케이블명	New Cross Pacific (NCP) Cable System	Southeast Asia-Japan Cable 2 (SJC2)	
구분	글로벌	글로벌	
RFS(Ready for Service)	2018	2025	
Cable Length	13,618 km	10,500 km	
Owners	China Mobile, China Telecom, China Unicom, Chunghwa Telecom, KT, Microsoft, Softbank	China Mobile, Chunghwa Telecom, DongHwa Telecom, KDDI, Meta, SK Broadband, Singtel, Telin, True Corporation, VNPT International	
Suppliers	SubCom	NEC	
Landing Points	Chongming, China	Chung Hom Kok, China	Tanshui, Taiwan
	Lingang, China	Lingang, China	Songkhla, Thailand
	Nanhui, China	Chikura, Japan	Quy Nhon, Vietnam
	Maruyama, Japan	Shima, Japan	
	Busan, South Korea	Changi South, Singapore	
	Toucheng, Taiwan	Busan, South Korea	
	Pacific City, OR, United States	Fangshan, Taiwan	
케이블명	Bridge One	JAKO	E2A
구분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RFS(Ready for Service)	2026 (예정)	2027 (예정)	2028 (예정)
Cable Length	330 km	260 km	12,500 km
Owners	DCT Telecom	Amazon Web Services, Arteria, Dreamline, Microsoft	Chunghwa Telecom, SK Broadband, Softbank Corp, Verizon
Suppliers	-	LS Cable & System	ASN
Landing Points	Itoshima, Japan	Fukuoka, Japan	Maruyama, Japan
	Busan, South Korea	Busan, South Korea	Busan, South Korea
			Toucheng, Taiwan Morro Bay, CA, United States

자료: Submarinecablemap, IBK투자증권

전력용 해저케이블 시장 현황 및 전망

국가 간 전력망 연계 위한 해저케이블 수요 확대

전력 불균형 · 재생에너지 확대, 초국경 전력망 필요성 부각

전력 공급의 불균형 심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필수적인 과제로 만들고 있다. 특히 HVDC 해저케이블을 활용한 초국경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추진되면서, 전력용 해저케이블 수요는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 지중해 · 남아시아 등 전 세계적인 HVDC 프로젝트 추진 흐름

유럽에서는 아일랜드와 프랑스를 잇는 Celtic Interconnector가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시공 중이며,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ELMED(튀니지-이탈리아)와 EuroAfrica Interconnector(이집트-키프로스-그리스)도 같은 시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남아시아에서는 India-Sri Lanka HVDC 프로젝트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 단계에 있다. 특히 동지중해의 Great Sea Interconnector(그리스-키프로스-이스라엘)는 키프로스의 전력 고립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전력을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전략적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표 6. 건설 및 계획 단계인 주요 국가 간 · 대륙 간 해저 전력망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구간	진행상태/ 상업운전(목표연도)	용량 및 규모	비고
Champlain Hudson Express (CHPE)	캐나다 - 뉴욕	건설 중 / 2026	약 545km/ 1,200 MW	퀘벡 수력 전력을 뉴욕 도심에 직접 공급
Celtic Interconnector	아일랜드 - 프랑스	건설 중 / 2028	약 575 km/ 700 MW	아일랜드 전력 고립 해소, EU 본토와 직결
ELMED Interconnector	튀니지 - 이탈리아	조달·착공 준비 / 2028	약 200 km/ 600 MW	북아프리카 재생·수력 전력을 이탈리아로 연계
NeuConnect	영국 - 독일	건설 중 / 2028	약 725 km/ 1,400 MW	독일 재생 잉여와 영국 수요 간 상호거래
EuroAfrica Interconnector	이집트 - 키프로스 - 그리스	개발·조달 중 / 2028-2029	약 1,396 km/ 2,000 MW	이집트 태양광·풍력 전력을 EU로 수출
India-Sri Lanka HVDC	인도 - 스리랑카	계획 단계 / 2030	약 285 km/ 500 MW	인도 잉여 재생전력의 스리랑카 연계
GRITA 2	이탈리아 - 그리스	협약·개발 단계/미정	약 300 km/ 1,000 MW	기존 500MW 연계를 고용량으로 교체·증설 (남유럽 전력 허브 강화)
Eastern Green Link 4 (EGL4)	스코틀랜드 - 잉글랜드	개발·설계 단계/미정	약 530 km / 2,000 MW	스코틀랜드 북해 풍력 전력을 잉글랜드 수요지로 대량 수송

자료: 국내외 언론, IBK투자증권

풍력발전은 전력용 해저케이블의 대표적 전방산업

2030년까지 연간 164GW
규모의 풍력 발전 신규
설치 전망

중국, 세계 풍력 시장
점유율(누적 설치 용량
기준) 47.8%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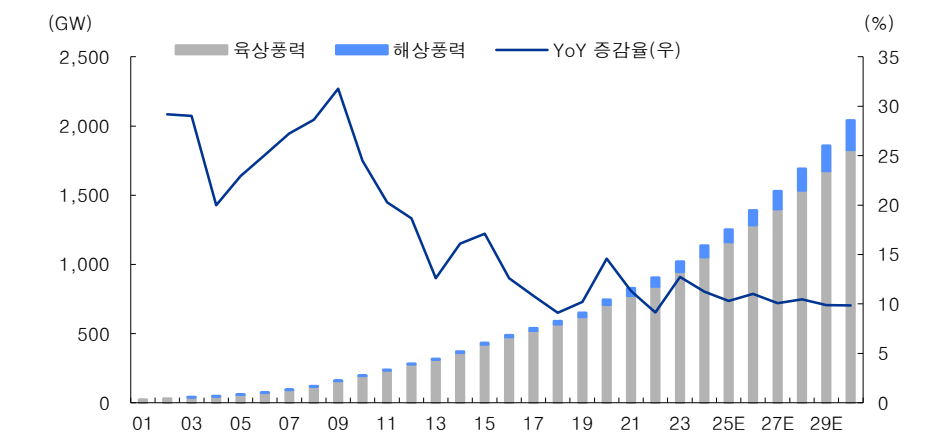
유럽,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 정책 강화로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미국,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중장기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여지는 존재

전력용 해저케이블 수요는 풍력발전 설치 용량 확대와 밀접하게 연동된다. 올해 글로벌 신규 풍력발전 설치 용량은 138GW(+17.9% yoy)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향후 2030년까지는 연평균 164GW 규모의 신규 설치가 예상되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8.8% 성장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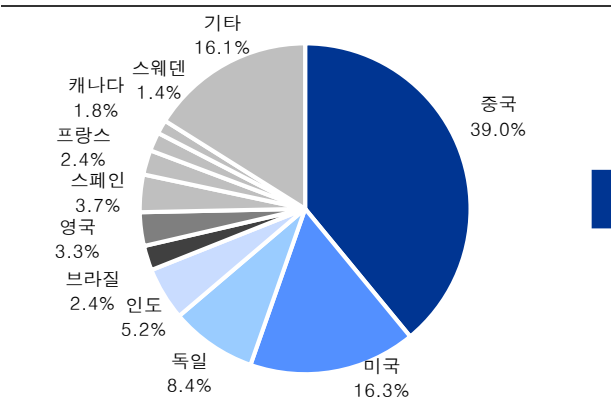
전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중국과 유럽이 성장을 견인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기준 중국의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은 561.5GW(+18.3% yoy)에 달하며, 이는 세계 총합의 47.8%(+2.7%p yoy)를 차지한다. 중국은 '30-60'(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국가 전략 목표 아래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할 전망이다.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REPowerEU(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5%로 상향), Clean Industrial Deal(탈탄소와 산업경쟁력 동시 확보) 등 EU 차원의 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최근 풍력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지만, 이미 많은 투자가 이뤄졌고 제조업 성장과 인공지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림 6. 글로벌 풍력발전 총 설치 용량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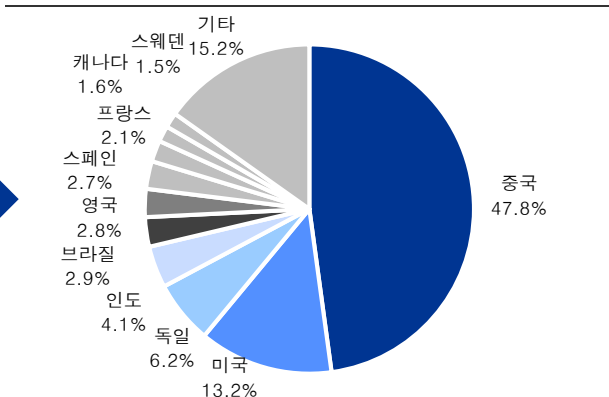
자료: GWEC, IBK투자증권

그림 7.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기준 국가별 비중(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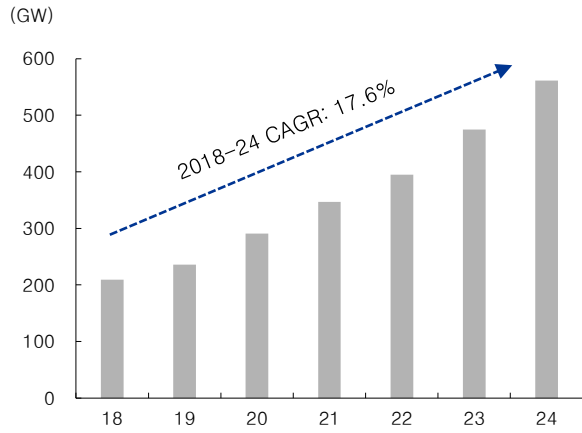
자료: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IBK투자증권

그림 8.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기준 국가별 비중(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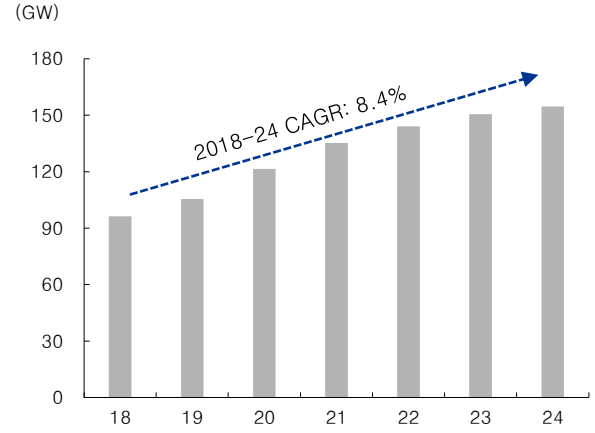
자료: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IBK투자증권

그림 9. 중국_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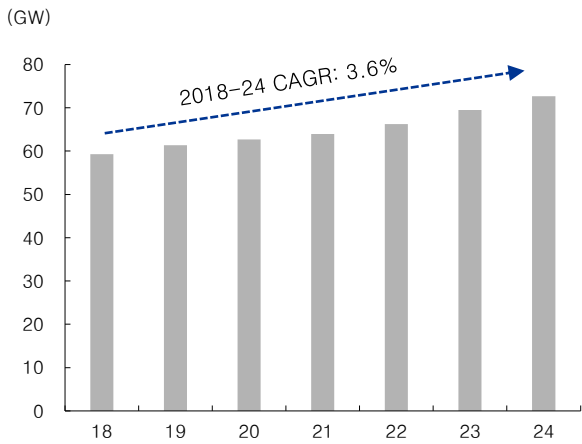
자료: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IBK투자증권

그림 10. 미국_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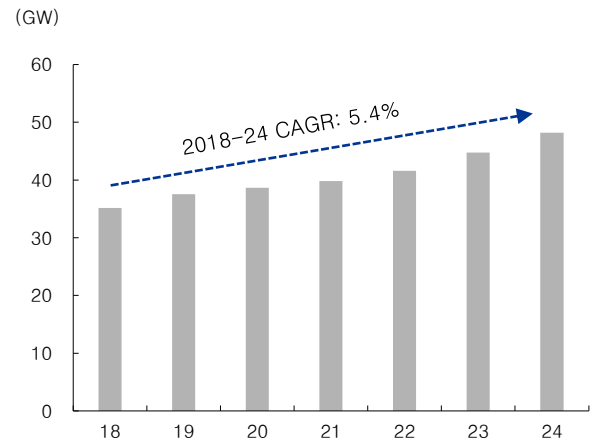
자료: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IBK투자증권

그림 11. 독일_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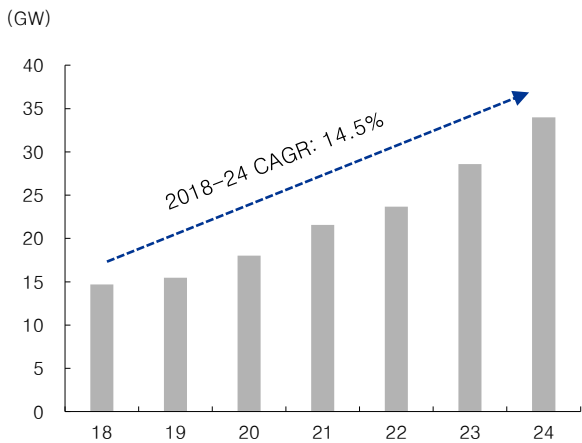
자료: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IBK투자증권

그림 12. 인도_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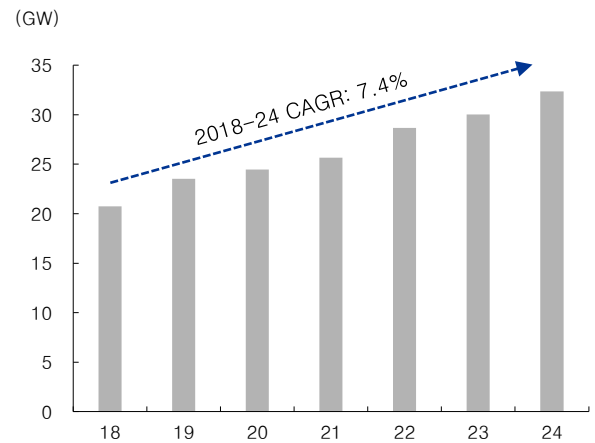
자료: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IBK투자증권

그림 13. 브라질_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자료: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IBK투자증권

그림 14. 영국_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



자료: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 IBK투자증권

해상풍력 확대, 전력용 해저케이블 수요 동반 증가

- 풍력 발전 확대
→ 해상풍력 비중 상승
→ 해저케이블 수요 증가

풍력발전 확대 국면에서 해상풍력(Offshore)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상으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해저 전력케이블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 대비 초기 건설 및 설치 비용이 높다는 한계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풍속이 강하고 일정해 발전 효율과 가동률이 높으며, 대규모 단지 조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풍력의 평균 이용률은 30~40% 수준으로 육상 풍력 대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7. 주요 해상풍력 설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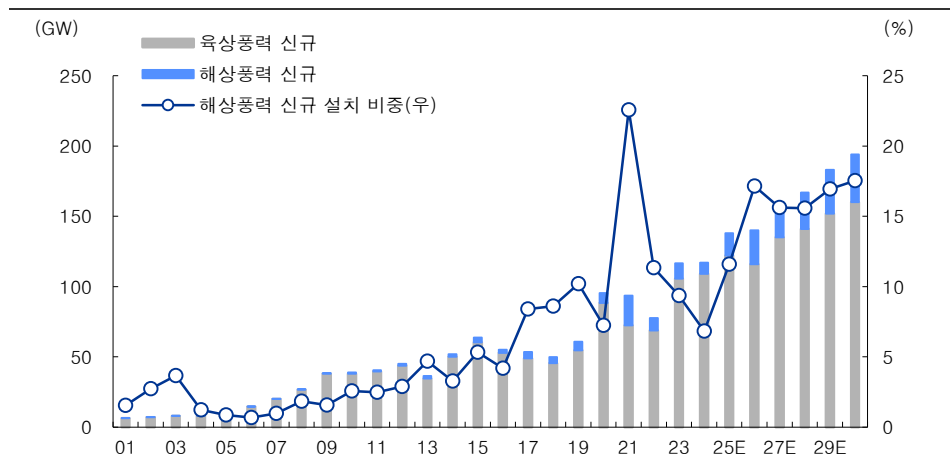
구분	해상풍력	육상풍력
장점	· 풍속이 강하고 일정해 발전 효율 높음 ·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수십~수백 MW) · 육지 소음·경관 민원 최소화 · 장기적 에너지 잠재량 큼	· 건설·운영 비용이 낮음 · 설치와 유지보수가 용이함 · 기존 전력망과의 연결 용이 · 초기 사업 추진 속도가 빠름
단점	· 초기 건설·설치 비용이 매우 높음 · 해저케이블·송전 인프라 필요 · 유지보수 어려움(해양환경 가혹) · 해양 생태계·어업과의 갈등 가능	· 입지 제약(산지, 평야 등 한정) · 소음, 경관 훼손 등 주민 민원 발생 · 풍속 변동성으로 출력 불안정 · 단지 규모 확장성 제한

자료: 국내의 언론, IBK투자증권

육상풍력 신규설치
연평균 성장률
(24~30E CAGR)은 6.6%,
해상풍력은 27.4% 전망

신규설치 기준, 글로벌 풍력발전에서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6% 수준에서 작년에는 6.8%로 확대됐다. 육상풍력의 신규 설치 규모가 작년 109GW에서 2030년 160G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8.0GW에서 34.0GW로 늘어나며 더 큰 증가 폭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상풍력 설치 비중 우상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5. 풍력 발전 신규 설치 추이 및 전망



자료: GWEC, IBK투자증권

글로벌 해상풍력, 중국과 유럽이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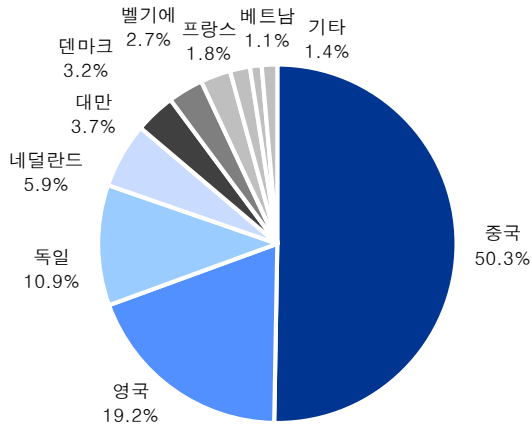
중국, 해상풍력
(누적 설치용량 기준)
시장의 50.3% 차지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는
유럽 해상풍력 강국

대만과 덴마크, 전략적
해상풍력 확대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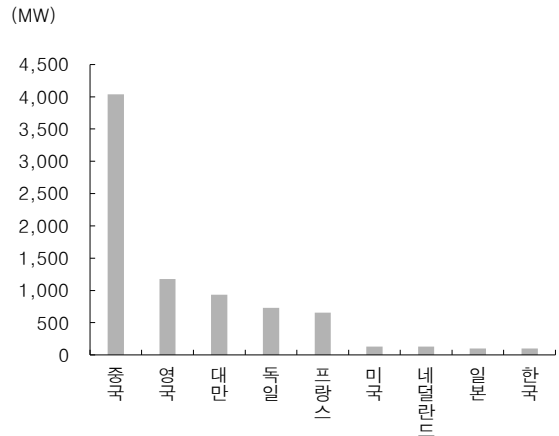
작년 기준 국가별 누적 해상풍력 설치용량은 중국이 41.8GW(비중: 50.3%)로 가장 높고, 영국과 독일이 각각 15.9GW(비중: 15.9%), 9.0GW(비중: 9.0%)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지리적 조건이 좋은 네덜란드(4.9GW, 비중: 5.9%), 원전·화력 의존도를 줄이며 해상풍력을 대체 전원으로 육성 중인 대만(3.0GW, 비중: 3.7%), 세계 최초로 해상풍력을 상용화(1991년)하고 베스타스(Vestas), 오르스테드(Ørsted)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을 보유한 덴마크(2.7GW, 비중: 3.2%)도 상대적으로 높은 설치 규모를 보였다. 반면 일본, 한국, 미국 등은 정책·규제 제약, 송전망 부족, 지역 반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에 그쳤다.

그림 16. 2024년 기준 국가별 해상풍력 누적 설치 비중



자료: GWEC, IBK투자증권

그림 17. 2024년 주요 국가별 해상풍력 신규 설치 용량



자료: GWEC, IBK투자증권

그림 18. 영국의 해상풍력 단지 개발 프로젝트(Hornsea)



자료: LS전선, IBK투자증권

표 8. 영국의 대표 해상풍력 프로젝트(Hornsea+Dogger Bank)

Hornsea 프로젝트 : 영국 요크셔 해안에서 약 120km 떨어진 노스해 남부	· Hornsea 1: 1.2GW (2020년 가동, 세계 최초 1GW 이상 해상풍력)
	· Hornsea 2: 1.3GW (2022년 가동, 가동 중인 최대급 단지)
	· Hornsea 3: 2.9GW (2020년 개발 승인, 2027년 말 상업운전 목표)
	· Hornsea 4: 2.6GW (2023년 개발 승인, 2030년대 초 가동 목표)
Dogger Bank 프로젝트 : 영국 요크셔 해안에서 북쪽, 약 130~200km 떨어진 노스해 중부 도거뱅크 (알은 해저 지형)	· Dogger Bank A(1.2GW)는 2023년 10월 첫 전력을 송전해 단계적으로 가동 중이고, B(1.2GW)와 C(1.2GW)는 각각 2025년과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함
	· 세 단계(ABC)가 완공되면 총 3.6GW로 단일 프로젝트 기준 세계 최대 해상풍력 단지가 되며, 이후 제안된 Dogger Bank D 등 동일 해역의 추가 사업까지 포함한 지역 클러스터 규모는 장기적으로 약 8GW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

자료: 국내의 언론, IBK투자증권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형 해상풍력 육성 전략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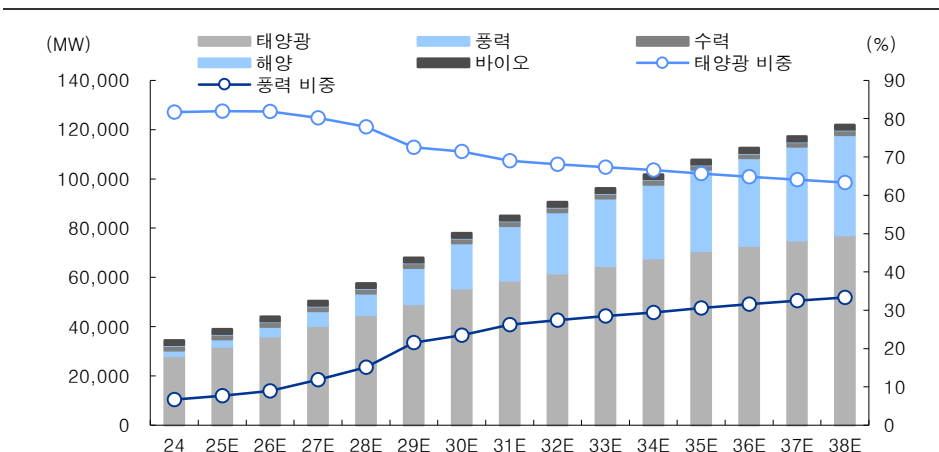
서남해와 동해 중심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추진

우리나라 풍력시장은 아직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성장 속도가 더딘 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자립도 제고,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서남해와 동해 연안 등 잠재력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송전 인프라 확충과 인허가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주목된다.

재생에너지 전체 설비 중
풍력 비중이 작년
6.7%에서 2038년
33.4%로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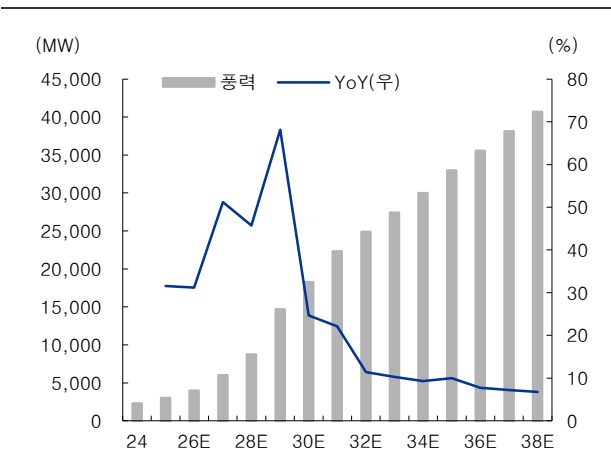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따르면, 국내 풍력 발전설비 용량은 작년 2.3GW에서 2030년 18.3GW, 2038년에는 40.7GW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체 설비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6.7%에서 2030년 23.4%, 2038년에는 33.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 설비 기준으로는 2035년부터 연간 풍력 발전설비 보급 용량이 태양광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9.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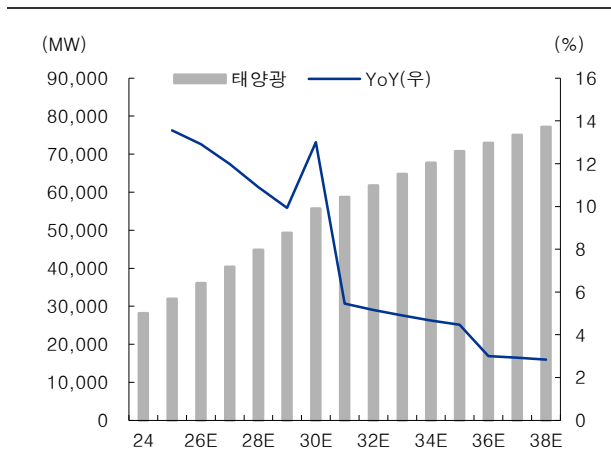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BK투자증권

그림 20. 풍력 설비 보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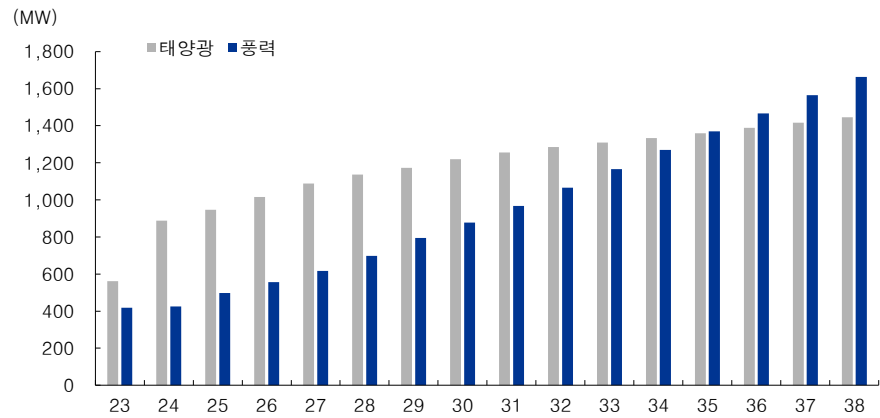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BK투자증권

그림 21. 태양광 설비 보급 전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BK투자증권

그림 22. 확정설비 용량 기준, 연도별 풍력과 태양광 보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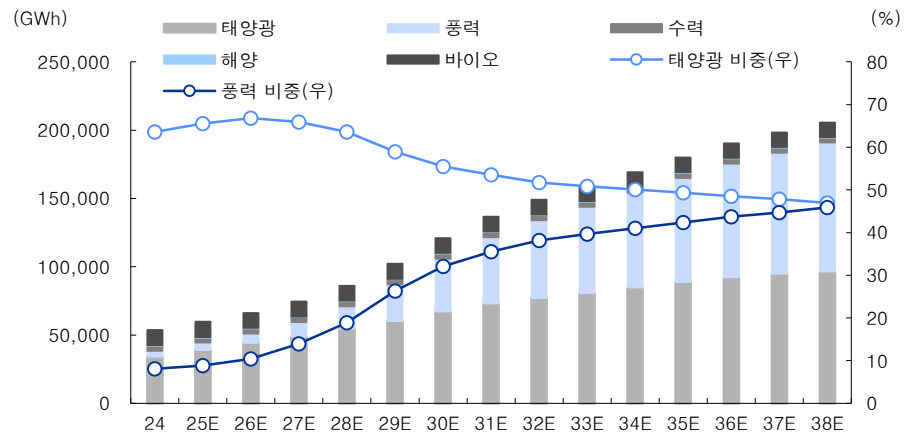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BK투자증권

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
중 풍력 비중이 작년
8.1%에서 2038년 45.9%
로 확대, 태양광(46.9%)에
근접할 전망

발전량 측면에서도 풍력의 위상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작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에서 풍력은 4,330GWh(비중: 8.1%)에 불과했으나, 2030년에는 38,822GWh(비중: 32.1%)로
증가할 전망이다. 2038년에는 풍력의 발전 비중이 45.9%에 이르러, 태양광(46.9%)과
유사한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3. 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BK투자증권

해상풍력법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성장의 촉매제 될 것

해상풍력법(제도적 기반)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물리적 인프라 기반)는 국내 해상풍력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로 평가

국내 풍력시장은 현재 육상풍력이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며, 해상풍력 비중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 보급 촉진과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특별법(약칭: 해상풍력법)이 올해 3월 제정되면서(26년 3월 시행)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 법 시행 이후에는 인허가 절차 단축, 해역 선(先)지정, 주민·어업권자와의 이익공유제 도입 등이 가능해져,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 속도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상업 운전 중인 HVDC 해상 연계는 해남-제주(300MW), 진도-제주(400MW), 완도-동제주(500MW) 등 세 노선이며, 제4연계선(신제주 HVDC)은 계획 및 사업화 검토 단계에 있으며 2030년 전후 완공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다.

표 9. 국내 상업 운전 중인 HVDC 해저 전력망

구분	노선명	상업운전	길이(총/해저)	용량	주요 의미
제1연계선	해남-제주 HVDC	1998년	약 101 km/ 약 96 km	300MW	국내 최초 HVDC 해저연계, 제주 전력 수급 안정화의 출발점
제2연계선	진도-제주 HVDC	2014년	약 105 km/ 약 90 km	400MW	전력 수요 증가·재생 확대 반영한 증설
제3연계선	완도-동제주 HVDC	2024년	약 90 km/ 약 90 km	500MW	국내 최초 전압형(VSC) HVDC, 계통 유연성·안정성 제고
제4연계선(계획)	신제주 HVDC(가칭)	2030년 전후 (계획)	미정	미정	재생전원 수용성 확대 및 계통 안정 보완 목적

자료: 국내외 언론, IBK투자증권

표 10. 제주도 발전원별 발전실적

(단위 : MWh, %)

구분	발전실적(2024년)	발전실적(2023년)	증가율	비중
HVDC	1,953,740	1,768,299	10.5	29.6
복합발전	1,752,739	1,704,932	2.8	26.6
기력	1,454,897	1,657,937	-12.2	22.1
재생에너지	1,302,828	1,162,261	12.1	19.8

자료: 전력거래소, IBK투자증권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해저 HVDC 송전망
구축이 핵심

전선 제조·시공 규모는
약 6조원으로 추산,
해저케이블 산업 전반
파급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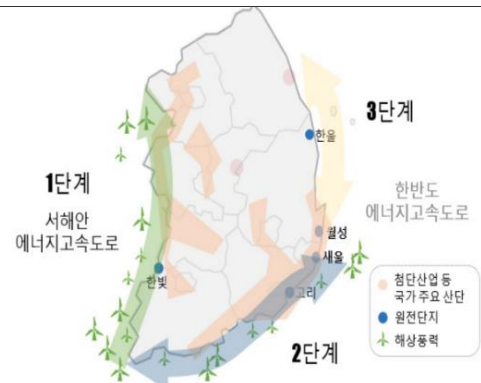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포함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1단계: 2030년 준공 예정) 프로젝트 추진으로 해상풍력 인프라가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서남해안 일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해저 HVDC(초고압직류송전,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송전망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전체 사업비는 약 11조원에 이른다. 이 중 전선 제조 및 시공 규모만 약 6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후 2040년까지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경북 동해안을 잇는 U자형 국가 전력망을 완성한다는 장기 구상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3. 제주 연계 HVDC 해저케이블 현황



자료: LS전선, IBK투자증권

그림 24. 에너지 고속도로 단계별 구축안



자료: 민주연구원, KBS, IBK투자증권

표 11. 국내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

발전소명	준공시기	용량(MW)
탐라해상	17.09	30.0
영광해상	18.12	34.5
서남해 실증	19.01	60.0
한림해상	24.01	100.1
전남	25.04	96.0
영광낙월	26.06	364.8
고창	27.09	76.2
신안 우이	28.09	396.8
영광 안마1	29.01	224.0
영광 안마2	29.01	308.0
완도 금일	29.08	200.0
완도 금일 2단계	29.08	400.0
충남 태안	29.09	500.0
영광 아월	30.09	104.0
울산 반딧불이	30.12	750.0

자료: 국내의 언론, IBK투자증권

해저케이블 밸류체인

중설 투자 적극적, 전력용 해저케이블 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

전력용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약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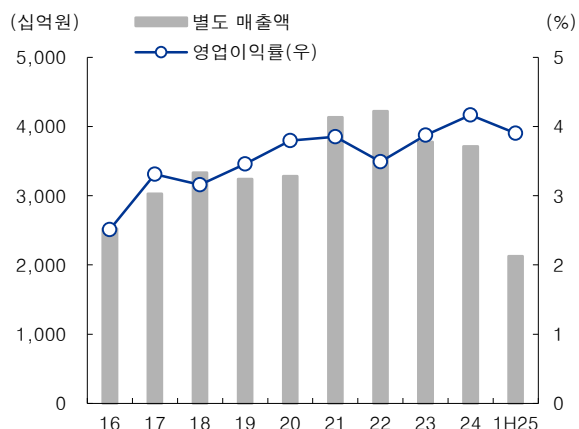
통신용 해저케이블 시장은 제조, 설치, 장기 유지보수 등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는 SubCom(미국), ASN(프랑스), NEC(일본)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용 해저케이블 시장에서는 국내외 해상풍력 확대 흐름과 맞물려 향후 국내 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다수의 업체들이 해저케이블 관련 설비 투자를 통해 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등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LS전선, 4월 미국 최대
규모 HVDC 해저케이블
공장 착공. 3Q27 완공,
1Q28 양산 목표

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약 6.8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의 HVDC 해저케이블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지난 4월 착공을 시작했으며, 2027년 3분기 완공, 2028년 1분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풍력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임을 고려해 생산 초기에는 해상풍력 단지 개발이 활발한 유럽 시장에 집중할 전망이다. 또, 7월에는 강원 동해 해저케이블 공장 내 5동을 준공했다. HVDC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이 기존 대비 4배 이상 확대됐으며, 아시아 최대급 HVDC 케이블 생산 역량을 확보했다. 이에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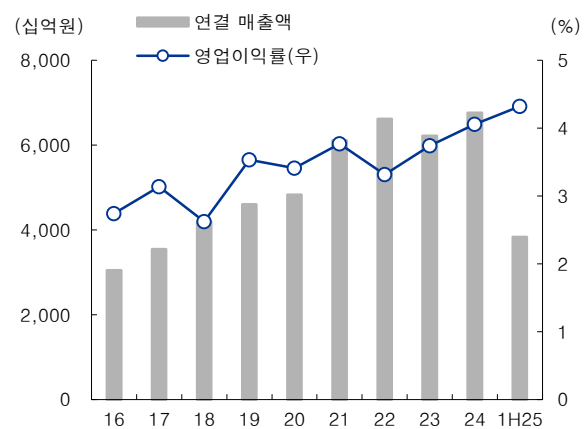
7월 국내 해저케이블 공장
내 5동 준공, 생산능력
기존 대비 4배 이상 확대

그림 25. LS전선 별도 실적 추이



자료: LS전선, IBK투자증권

그림 26. LS전선 연결 실적 추이



자료: LS전선, IBK투자증권

LS에코에너지, 베트남과
영국에 해저케이블 공장
설립 투자 검토

자회사 LS에코에너지는 지난 8월 베트남 국영 에너지 기업(Petro Vietnam)과 합작으로 HVDC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 설립 추진을 발표했다. 베트남은 2035년까지 해상풍력 17GW, 2050년까지 90GW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사는 베트남 전선 시장 1위 지위를 기반으로 베트남이 동남아 해상풍력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투자 결정 및 착공을 거쳐 2029~2030년 제품 양산이 예상되며, 싱가포르·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의 해저케이블 수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영국 해저케이블 공장 투자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HVDC 해저케이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미 Prysmian(이탈리아), Nexans(프랑스), NKT(덴마크) 등 메이저 업체들의 수주잔고가 2028~2030년까지 차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인 LS에코에너지도 시장 성장에 따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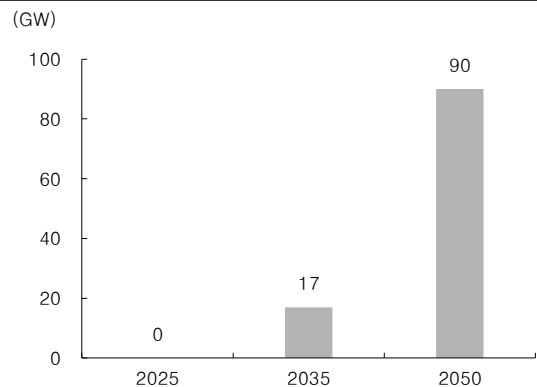
그림 27. LS에코에너지 베트남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 계획

- 투자 예상 내역 : 해저케이블 생산 공장
- VCV Towers 180m / : 설비 Capa. ~500km/year
- 투자지역 : 봉타우 지역 푸미 항구
- 면적 : 약 15 ~ 20ha (4.5~6만평)
- 생산 제품 : HVDC/HVAC XLPE



자료: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그림 28. 베트남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 전망



자료: vietnam-briefing.com,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주: 베트남 정부의 제8차 전력개발 계획(PDP8) 조정안 승인(2025.04.15)

대한전선, 6월 해저케이블
1공장 2단계 준공.

9월 착공 들어간 2공장
1단계는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

640kV HVDC 설비 확보
통한 수주 대응력 강화
기대

대한전선은 2009년부터 해저케이블 공급을 시작해 국내 서남해·영광낙월 해상풍력 및 러시아, 호주, 베트남 등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당진 케이블 공장 내 일부 설비에서 해저케이블을 생산해왔으나, 작년 6월 해저케이블 1공장 1단계를 준공하고 올해 6월에는 2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며 생산 능력을 강화했다. 이어 9월 착공에 들어간 2공장은 1단계 기준 2027년 하반기 준공, 202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40kV급 HVDC 해저케이블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전선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국내외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해저케이블 1공장	
위치	충청남도 당진항 고대부두
면적	47,240㎡
가동시점	1단계 2024년 6월, 2단계 2025년 6월 준공
생산품목	내부망 케이블, 외부망 케이블, 다이내믹 케이블
특징	케이블 솔루션 플랜트와 인접해 있어 자원 및 인력 시너지 효과 극대화. 부두와 직접 연결되어 케이블 선적 용이
해저케이블 2공장	
위치	충청남도 당진항 고대부두
면적	214,713㎡
가동시점	1단계 2028년 상반기 (2025년 9월 착공,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
생산품목	HVDC 해저케이블(640kV), 내부망 케이블, 외부망 케이블, 다이내믹 케이블
특징	공장 1과의 자원 연계 시너지, 항만과 인접해 해상 접근성 우수, 스마트 팩토리 운영 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확대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주: 내부망 케이블(Inter Array Cable): 풍력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 발전기와 해상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케이블

외부망 케이블(Export Cable): 해상 변전소와 육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케이블

인터커넥트 케이블(Interconnection Cable): 육지-섬 또는 육지-육지를 연결하는 케이블

다이내믹 케이블(Dynamic Cable):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기와 육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케이블

표 13. 대한전선의 국내외 주요 해저케이블 납품 실적

프로젝트명	국가	범위	전압	상태
영광낙월 해상풍력	한국	공급	33kV	진행 중
서남해 해상풍력	한국	EPC	22.9kV	운영 중
National Grid HVDC Framework	영국	EPC	HVDC	수주
Madeline Island Project	미국	공급	MV	진행 중
Biryusinsky Bay Project	러시아	공급	MV	운영 중
Ausgrid Project	호주	공급	MV	운영 중
Vietsovpetro Project	베트남	공급	MV	운영 중
Seychelles Islands Project	세이셸	공급	MV	운영 중
기타 (10개 프로젝트)	한국	공급	MV	2009년 ~ 현재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해저케이블, 미국의 중국 배제 흐름은 기회

미국, 해저케이블 전
영역에서 중국 철저 배제

미국은 자국 영토와 직접 연결되는 해저케이블에서 장비, 설계, 시공 전 분야에서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2020년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홍콩까지 연결하려던 PLCN(Pacific Light Cable Network) 프로젝트는 중국 기업 참여와 홍콩 보안 우려로 인해 미국 정부가 승인을 거부, 결국 홍콩 구간이 취소되고 미국-대만, 미국-필리핀 구간만 조건부 승인됐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7월 중국 장비 사용
케이블차단 규정 발표

더 나아가 올해 7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기술이나 장비가 사용되는 경우 미국과 연결되는 해저 통신 케이블을 차단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HMN Tech를 비롯한 중국 해저케이블 업체뿐만 아니라 화웨이, ZTE,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미국 착륙국(landing station)이 포함될 경우 안보 위협을 이유로 사실상 제한을 받게 되었다.

중국 규제는
한국 업체에게
기회로 작용 전망

해저케이블 시장에서 선도 업체들과의 격차가 크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LS전선, 대한전선 등 국내 업체들의 미국 시장 확대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 글로벌 통신용 해저케이블 주요 기업

기업	설립	국가	주요 분야 / 역할	비고
SubCom	1955	미국	시스템 터키(설계·제조·시공·유지보수)	케이블·증폭기(repeaters)·포설선(CL V) 보유. 2018년 TE Connectivity → Cerberus 매각 후 독립
NEC	1899	일본	시스템 터키 / 케이블 제조(OCC 자회사)	전용 포설선은 없음(차터 중심). 케이블 제조는 OCC가 담당
ASN	1858	프랑스	시스템 터키 / 케이블-증폭기	프랑스 정부 80% 지분 보유(2025.1 매각 종결). Nokia 20% 잔류
HMN Tech	2020	중국	시스템 터키	2020년 Huawei Marine에서 리브랜딩; 형통계열 대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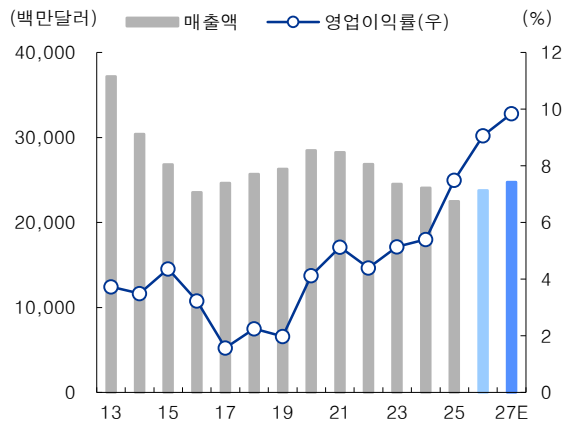
자료: 각사, 국내외 언론, IBK투자증권

표 15. 글로벌 전력용 해저케이블 주요 기업

기업	설립	국가	주요 분야 / 역할	비고
Prysmian Group	2005	이탈리아	HVDC/HVAC 해저 전력 케이블·시공	2018년 General Cable 인수로 북미 역량 확대
Nexans	2000	프랑스	HVDC/HVAC 해저 전력 케이블·시공	노르웨이 Halden 공장 증설, 525 kV HVDC·420 kV HVAC 생산 대응
NKT	1891	덴마크	HVDC/HVAC 해저 전력 케이블·시공	2017년 ABB 고전압 케이블 사업 인수
Sumitomo Electric	1897	일본	HV 전력 케이블·광섬유	아시아·유럽 프로젝트 수행 사례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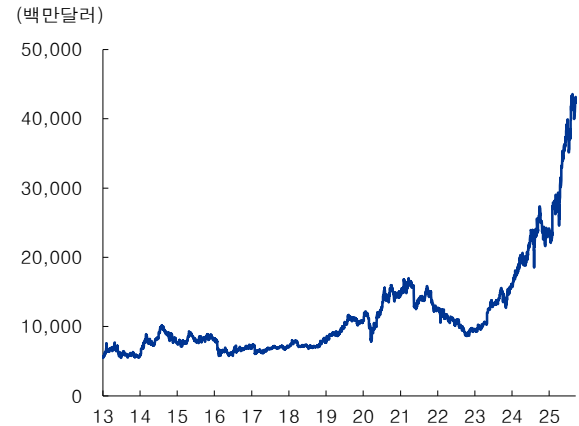
자료: 각사, 국내외 언론, IBK투자증권

그림 29. NEC_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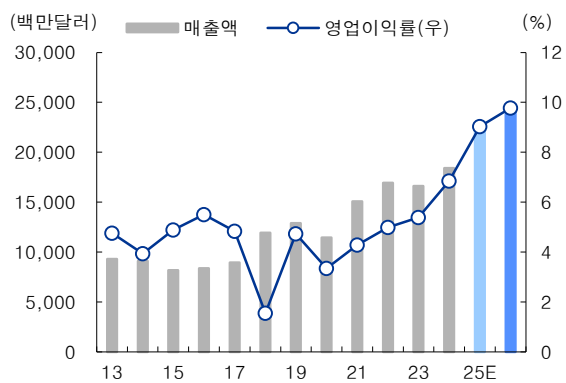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30. NEC_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31. Prysmian Group_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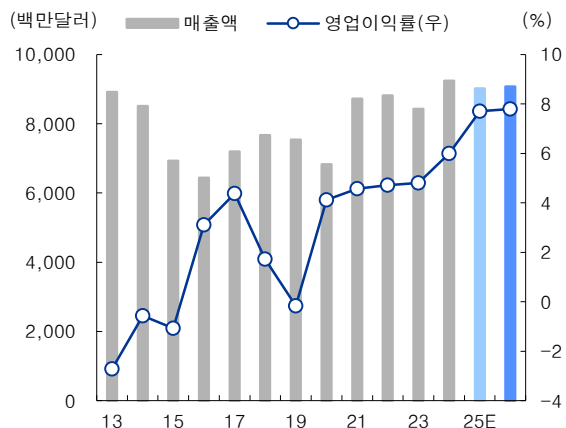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32. Prysmian Group_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33. Nexans_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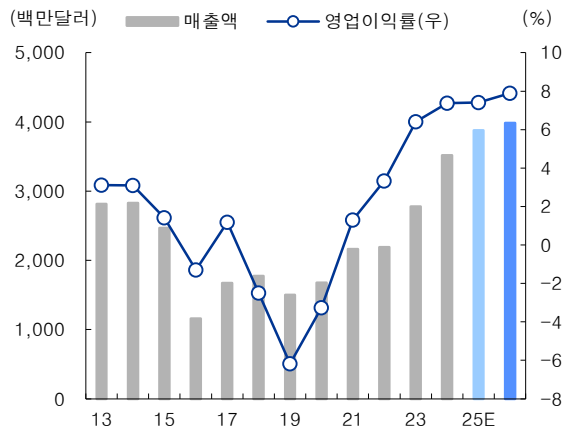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34. Nexans_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35. NKT_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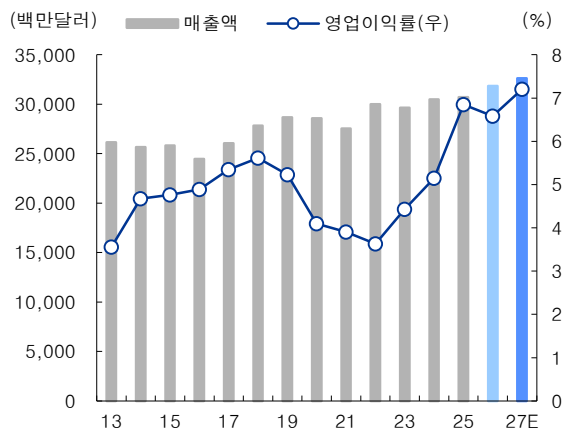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36. NKT_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37. Sumitomo Electric_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그림 38. Sumitomo Electric_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국내 전선 업계, 해저케이블 시공·유지보수 역량 강화

국내 전선 업계, 제조
중심에서 밸류체인 확장
및 강화 움직임

LS전선은 LS마린솔루션과
협업 강화, 대한전선은
포설선 확보

LS그룹, 수직 계열화로
EPC 의존도 축소 및 수주
경쟁력 강화

해저케이블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케이블 제조뿐 아니라 운송·포설·매설 등 시공과 유지보수 분야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전력용 해저케이블 메이저 3사(Prysmian, Nexans, NKT)와 통신용 해저케이블 메이저 3사(ASN, SubCom, NEC)는 케이블 제조와 더불어 시공·유지보수 역량까지 보유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업체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그동안 케이블 제조에 주력해왔다. LS전선은 LS마린솔루션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전선도 지난 7월 해저케이블 시공업체 오션씨엔아이(Ocean Sea Engineering)를 인수해 해상 풍력용 CLV(Cable Laying Vessel) 포설선을 확보했다. 케이블 생산에서 운송, 시공, 유지보수 등 전체 밸류 체인 수행 역량을 갖춘만큼 사업기회는 확대될 전망이다.

LS마린솔루션은 통신망 해저케이블 시공 및 유지보수 경험을 기반으로, 최근 전력용 해저케이블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LS전선(2Q25 기준 지분율 66.8%)이 제조한 케이블을 LS마린솔루션이 시공하는 그룹 내 수직 계열화를 통해, LS전선의 해외 EPC 의존도를 낮추고 수주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6. 국내외 주요 해저케이블 제조사 비교

구분	회사	용도	제조 (케이블)	시공 (운송·포설·매설)	O&M	턴키	CLV 보유	비고
국내	LS전선	전력·통신	O	G	G	G	X	제조 중심, 시공·O&M은 그룹사 연계
	대한전선	전력	O	O	O	O	O	국내 보유 CLV Palos로 풀 밸류체인 가능
	LS마린솔루션	전력·통신 (시공/O&M)	X	O	O	G	O	설치·유지보수 전문, 대형 CLV는 건조 결정
해외	Prysmian (이탈리아)	전력·통신	O	O	O	O	O	글로벌 선도, 대형 CLV 다수 보유
	Nexans (프랑스)	전력·통신	O	O	O	O	O	+525 kV HVDC, Aurora 보유
	NKT (덴마크)	전력	O	O	O	O	O	CLV NKT Victoria 보유
	Sumitomo Electric (일본)	전력·통신	O	P	P	P	X	제조 강점, 설치·유지보수는 파트너 활용
	ASN (프랑스)	통신	O	O	O	O	O	2024~25 프랑스 국유화, 전용 케이블선단 보유
	SubCom (미국)	통신	O	O	O	O	O	Reliance-class 등 대형 케이블선단 운영
	NEC (일본)	통신	O	O	O	O	차	케이블은 자회사 OCC 제조, 설치선은 장기 차터 운용
	HMN Tech (중국)	통신	O	O	O	O	차	2020년 화웨이 마린서 리브랜딩, 프로젝트별 선박 차터

자료: 국내외 언론, IBK투자증권

주: O: 자체 수행/보유

X: 없음/비핵심

P: 파트너 중심 수행(건설사업·외부 EPC 연계)

G: 그룹/자회사 연계 수행

차: 차터(임차) 선박 중심 운용

LS마린솔루션, 5월 국내
최초 해외 전력망 시공
프로젝트 수주

LS마린솔루션은 지난 5월 대만 해상풍력단지에서 해저케이블 매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상대는 신폭스 극동회사(Shinfox Far East)와 대만전력청(TPC)이며, 규모는 약 1,580만 달러(한화 약 227억원)다. 이번 계약에 따라 2025년 5월 4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약 1년간 대만 해상풍력단지에서 해저케이블 트렌칭(Trenching, 해저 지면 절개 작업) 및 매설(Burial, 해저면 하부 삽입)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계약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국내 해저케이블 시공 업체 중 최초의 해외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3,000톤급 초대형 CLV
발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또한 지난 5월 케이블 적재 중량 13,000톤급 초대형 해저케이블 포설선(CLV: Cable Laying Vessel, 바다 밑에 전력용 해저케이블이나 통신용 광케이블을 운송·포설·매설 하는 특수 목적 선박) 신규 발주와 고사양 매설 장비 확보, 보유 선박 유지 보수 등 시설 투자를 위해 2,783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이후 최종 공모 규모는 4,178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기반으로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내 전략 사업뿐만 아니라 미국·대만·베트남 등 글로벌 해저 전력망·통신망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장기 성장 구조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포설선 2028년
상반기 운항 개시, LS전선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
양산 시점과 맞물려
시너지 극대화 전망

최근 발주한 신규 포설선은 유사한 규모와 사양을 갖춘 선박이 전 세계에 단 세 척뿐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다. 이에 따라 2028년 상반기 운항이 시작되면 글로벌 해상풍력 및 초장거리 해저 전력망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북미·유럽·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공장과 현지 법인을 구축하며 해저케이블 공급망을 확장 중인 LS전선과의 시너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LS전선이 건설 중인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의 제품 양산 시점(2028년 1분기)과 맞물리면서, 그룹 차원의 글로벌 턴키 수주 대응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9. LS마린솔루션_건조중인 신규 해저케이블 포설선

■ 선적 용량 **13,000 톤** ■ 제원 **140m x 30m x 8m**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표 17. 해저케이블 포설선의 주요 기능

케이블 적재 및 운송	· 대형 회전 드럼(턴테이블)에 수천 톤 규모의 해저케이블을 감아 탑재 후 운송
정밀한 케이블 포설	· GPS와 DP(Dynamic Positioning, 동적 위치제어) 시스템을 통해 해상에서 위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유지
매설 (Trenching & Burial)	·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원격 무인잠수정)이나 매설 플라우(plough)를 이용해 케이블을 해저면 속으로 삽입 · 외부 충격이나 어선, 닻 등으로부터 보호
케이블 접속 및 검사	· 현장에서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손상 여부 검사, 유지보수 수행

자료: 국내의 언론, IBK투자증권

그림 40. LS마린솔루션의 주요 국내 해상풍력 및 해상그리드 시공 실적

전남해상풍력 1단지		제주 2연계 HVDC	
	위치	위치	제주~전남 진도 지역
	개발사	발주처	한국전력공사
	발전용량	시공길이	106km
	일정	일정	2009년(착공) ~ 2012년
		제주 3연계 HVDC	
위치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상	위치	제주~전남 완도 지역
개발사	전남해상풍력(주) (JOWP)	발주처	한국전력공사
발전용량	96MW	시공길이	89km
일정	2022년(착공) ~ 2025년(상업운전 개시)	일정	2023년(착공) ~ 2025년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그림 41. LS마린솔루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국내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

영광 안마 1·2 해상풍력

위치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근

개발사

안마해상풍력(주) (Equis 싱가포르)

발전용량

532MW

일정

2027년 (착공예정) ~ 2028년 (상업운전 개시)

총사업비

약 4조원 (추정)

신안 우이 해상풍력

위치

전남 신안군 우이도 인근

개발사

한화오션(주) (한화건설 양도)

발전용량

396MW

일정

2027년 (착공예정) ~ 2028년 (상업운전 개시)

총사업비

약 25조원 (추정)

태안 해상풍력

위치

충남 태안군 서해상

개발사

태안해상풍력(주) (VenaEnergy 싱가포르+CIP 덴마크)

발전용량

504MW

일정

2028년 (착공예정) ~ 2029년 (상업운전 개시)

총사업비

약 3조원 (추정)

신안 해상 1·3 해상풍력

위치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개발사

해송해상풍력(주) (CIP/COP 덴마크)

발전용량

1GW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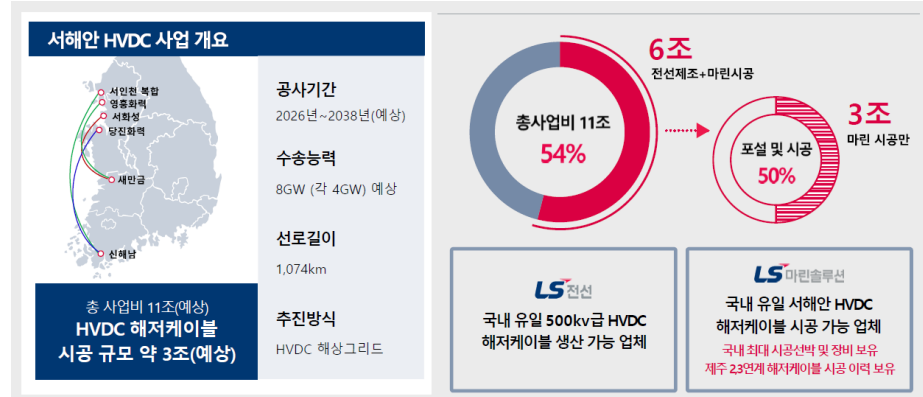
2030년 (착공예정) ~ 2031년 (상업운전 개시)

총사업비

약 6조원 (추정)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그림 42.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수주 확보 준비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편집상 공백입니다”



Company Analysis

기업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대한전선 (001440)	매수(신규)	22,000원
LS에코에너지 (229640)	매수(신규)	53,000원
LS마린솔루션 (060370)	Not Rated	—

매수 (신규)

목표주가 22,000원
현재가 (9/18) 15,87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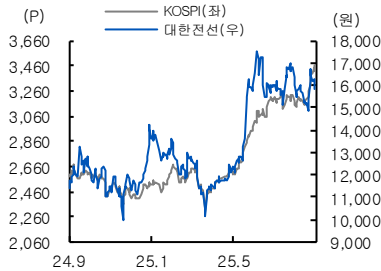
KOSPI (9/18)	3,461.30pt
시가총액	2,959십억원
발행주식수	186,447천주
액면가	1,000원
52주 최고가	17,570원
최저가	10,000원
60일 일평균거래대금	21십억원
외국인 지분율	7.8%
배당수익률 (2024F)	0.0%

주주구성	
호반산업 외 2 인	41.98%
국민연금공단	6.03%

주가상승률	1M	6M	12M
상대기준	-11%	-7%	5%
절대기준	-3%	24%	41%

	현재	직전	변동
투자의견	매수	-	-
목표주가	22,000	-	-
EPS(24)	198	-	-
EPS(25)	512	-	-

대한전선 상대주가 (%)



대한전선 (001440)

시공 역량 내재화로 밸류체인 확대

상반기 부진했지만, 하반기 개선 기대 유호

1H25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7,718억원(+7.2% yoy), 557억원 (-15.9% yoy)을 기록했다. 산업전선, 통신, 초고압/해저케이블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독일·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법인의 실적 호조로 외형 성장세는 이어졌다. 다만 LME 가격 및 환율 하락 등 외부 요인과 해저케이블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비용으로 인해 수익성은 하락했다. 수주잔고는 2조 8907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 개선되었으며, 2H25는 고마진 수주에 대한 매출 인식이 확대되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영업이익은 21.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저케이블 증설 및 시공 역량 확보 긍정적

2009년 해저케이블 공급을 시작으로, 국내 서남해·영광낙월 해상풍력과 러시아, 호주, 베트남 등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해저케이블 1공장 1단계를 준공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2단계 준공을 마쳤다. 이어 9월 착공에 들어간 2공장(1단계: 2027년 하반기 준공, 2028년 상반기 가동 예정)은 640kV급 초고압직류송전(HVDC) 생산설비를 갖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국내외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7월 해저케이블 시공업체 오션씨엔아이를 인수하면서 해상풍력 전용 포설선(CLV, Cable Laying Vessel)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최근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내·외부망 포설을 본격 진행 중이다.

중장기 수주 경쟁력 및 사업 기회 강화 전망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2,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 풍력 발전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케이블 생산뿐 아니라 운송, 포설·매설 등 시공 밸류체인 수행 역량을 확보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수주 경쟁력이 강화되고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십억원,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2,844	3,291	3,611	3,972	4,290
영업이익	80	115	115	142	160
세전이익	65	76	56	125	137
지배주주순이익	71	70	37	95	101
EPS(원)	510	409	198	512	544
증가율(%)	219.9	-19.9	-51.5	158.6	6.3
영업이익률(%)	2.8	3.5	3.2	3.6	3.7
순이익률(%)	2.5	2.2	1.3	2.6	2.7
ROE(%)	7.8	5.8	2.5	6.1	6.1
PER	17.9	27.3	80.2	31.0	29.2
PBR	1.4	1.4	2.0	1.8	1.7
EV/EBITDA	13.4	13.0	19.0	16.8	15.6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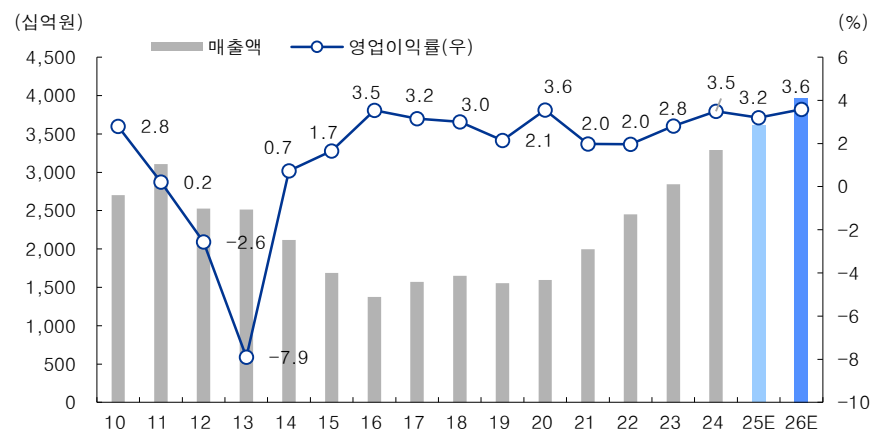
표 18. 대한전선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E	4Q25E	2024	2025E	2026E
매출액	788.5	864.3	804.4	834.0	855.5	916.4	925.7	913.0	3,291.3	3,610.6	3,971.9
YoY	12.0%	14.6%	27.7%	10.4%	8.5%	6.0%	15.1%	9.5%	15.7%	9.7%	10.0%
매출원가	729.2	795.4	747.8	755.4	795.9	854.0	861.8	836.3	3,027.9	3,348.0	3,675.6
YoY	10.9%	13.7%	26.6%	7.3%	9.1%	7.4%	15.2%	10.7%	14.2%	10.6%	9.8%
% COGS	92.5	92.0	93.0	90.6	93.0	93.2	93.1	91.6	92.0	92.7	92.5
매출총이익	59.3	68.9	56.6	78.6	59.6	62.4	63.9	76.7	263.4	262.5	296.3
YoY	74.6%	129.0%	-5.1%	-12.0%	-14.7%	-48.9%	64.2%	20.6%	37.2%	-0.3%	12.9%
% GPM	7.5	8.0	7.0	9.4	7.0	6.8	6.9	8.4	8.0	7.3	7.5
판매관리비	30.5	31.5	29.4	56.8	32.5	33.8	35.2	45.7	148.2	147.1	154.2
YoY	38.2%	18.7%	11.2%	-16.0%	-17.2%	26.7%	25.8%	39.6%	32.1%	-0.7%	4.8%
% SG&A	3.9	3.6	3.7	6.8	3.8	3.7	3.8	5.0	4.5	4.1	3.9
영업이익	28.8	37.4	27.2	21.8	27.1	28.6	28.7	31.0	115.2	115.4	142.2
YoY	62.7%	55.9%	56.3%	5.1%	-5.8%	-23.6%	5.5%	42.4%	44.3%	0.2%	23.2%
% OPM	3.6	4.3	3.4	2.6	3.2	3.1	3.1	3.4	3.5	3.2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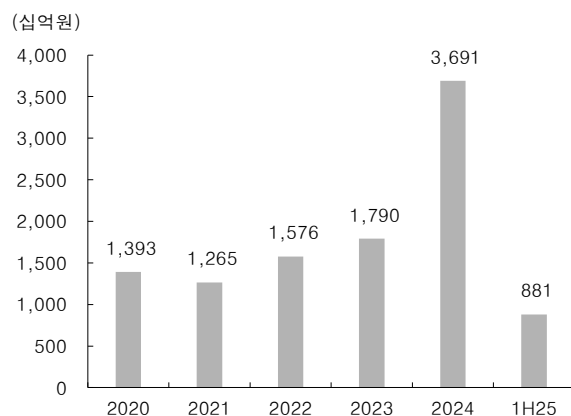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그림 43.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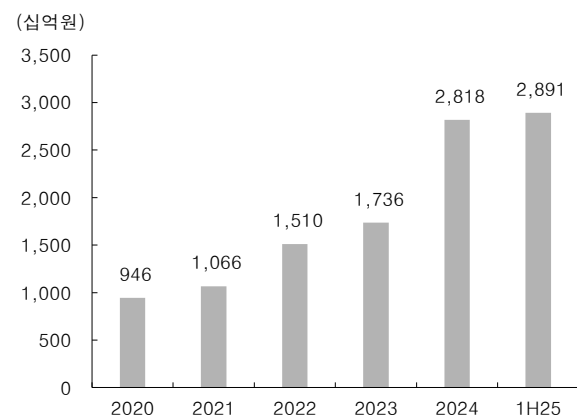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그림 44. 대한전선 수주 금액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그림 45. 대한전선 수주 잔고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그림 46.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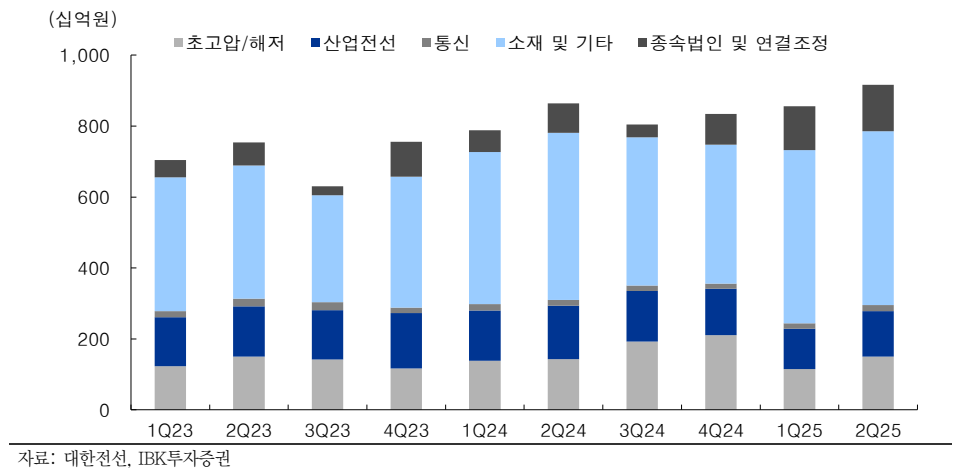


그림 47. 초고압/해저 및 산업전선 부문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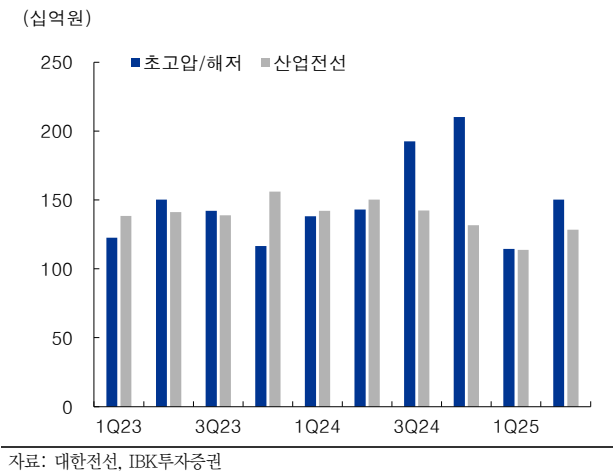


그림 48. 소재 및 기타 부문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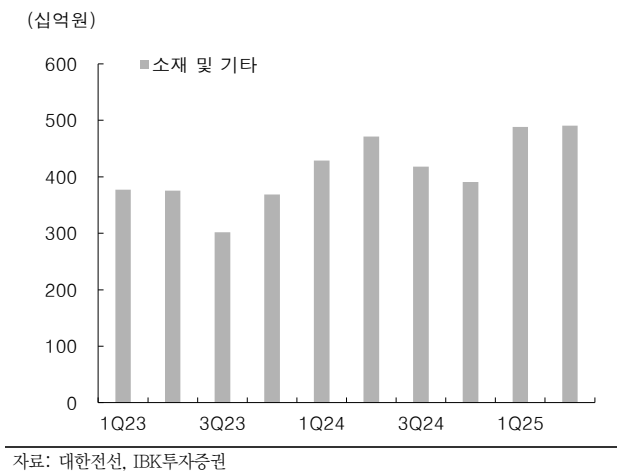


그림 49.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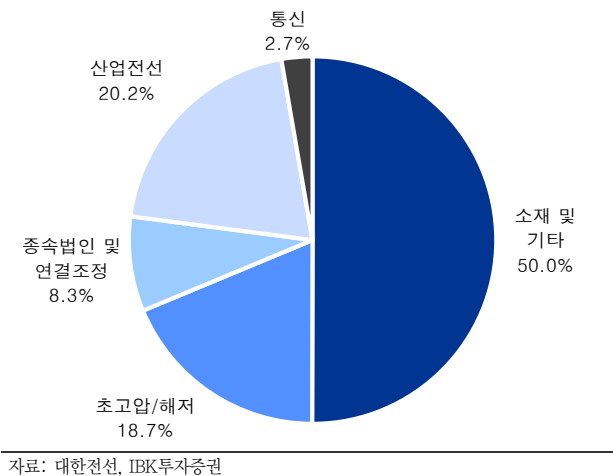


그림 50.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1H2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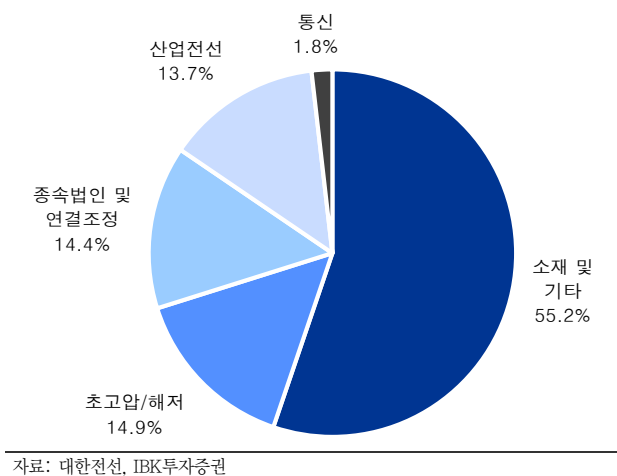


표 19.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해저케이블 1공장	
위치	충청남도 당진항 고대부두
면적	47,240㎡
가동시점	1단계 2024년 6월, 2단계 2025년 6월 준공
생산품목	내부망 케이블, 외부망 케이블, 다이내믹 케이블
특징	케이블 솔루션 플랜트와 인접해 있어 자원 및 인력 시너지 효과 극대화. 부두와 직접 연결되어 케이블 선적 용이
해저케이블 2공장	
위치	충청남도 당진항 고대부두
면적	214,713㎡
가동시점	1단계 2028년 상반기 (2025년 9월 착공,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
생산품목	HVDC 해저케이블(~640kV), 내부망 케이블, 외부망 케이블, 다이내믹 케이블
특징	공장 1과의 자원 연계 시너지, 항만과 인접해 해상 접근성 우수, 스마트 팩토리 운영 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확대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주: 내부망 케이블(Inter Array Cable): 풍력 발전기와 발전기 사이, 발전기와 해상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케이블

외부망 케이블(Export Cable): 해상 변전소와 육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케이블

인터커넥트 케이블(Interconnection Cable): 육지-섬 또는 육지-육지를 연결하는 케이블

다이내믹 케이블(Dynamic Cable):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기와 육상 변전소를 연결하는 케이블

그림 51. 해저케이블 1공장 주요 생산 품목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주: 2024년부터 연결실적 반영

그림 52. 해저케이블 2공장 주요 생산 계획 품목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주: 2024년부터 연결실적 반영

표 20. 국내외 주요 해저케이블 납품 실적

프로젝트명	국가	범위	전압	상태
영광낙월 해상풍력	한국	공급	33kV	진행 중
서남해 해상풍력	한국	EPC	22.9kV	운영 중
National Grid HVDC Framework	영국	EPC	HVDC	수주
Madeline Island Project	미국	공급	MV	진행 중
Biryusinsky Bay Project	러시아	공급	MV	운영 중
Ausgrid Project	호주	공급	MV	운영 중
Vietsovetro Project	베트남	공급	MV	운영 중
Seychelles Islands Project	세이셸	공급	MV	운영 중
기타 (10개 프로젝트)	한국	공급	MV	2009년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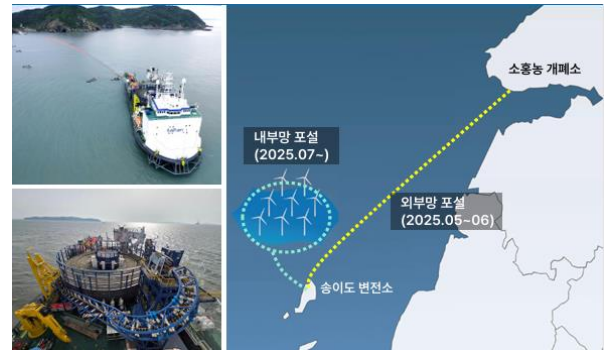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그림 53. 대한전선의 CLV 포설선 팔로스(Palos)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그림 54.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 내외부망 포설 시공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그림 55. 제품 포트폴리오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그림 56. 주요 고객 및 파트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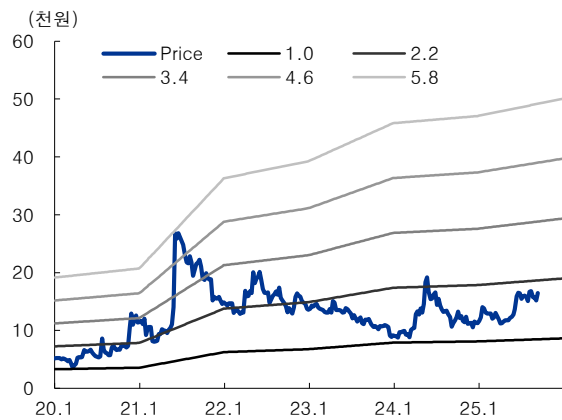
자료: 대한전선, IBK투자증권

표 21. 대한전선 적정주가(목표주가) 산출

EV/EBITDA Valuation		
EBITDA (2026E)	1,764	억원
Target Multiple	22.6	배
목표 EV	39,960	억원
(-) Net Debt	-442	억원
(+) Investment Securities	342	억원
(-) Minority Interest	409	억원
목표 시가총액	40,335	억원
주식수	186,447	천주
적정주가	21,634	원
목표주가	22,000	원
현재주가	15,870	원
상승여력	38.6	%
EV/EBITDA (2021-24 평균)		
최고치	36.2	배
최저치	13.6	배
평균치	22.6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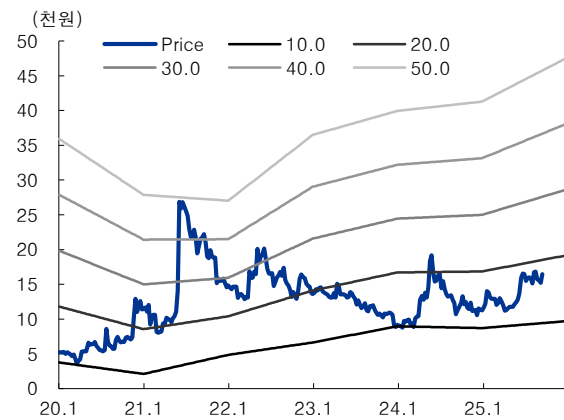
자료: IBK투자증권

그림 57. 대한전선 Fwd PER 밴드차트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58. 대한전선 Fwd EV/EBITDA 밴드차트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대한전선 (001440)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2,844	3,291	3,611	3,972	4,290
증가율(%)	16.1	15.7	9.7	10.0	8.0
매출원가	2,652	3,028	3,348	3,676	3,965
매출총이익	192	263	263	296	324
매출총이익률 (%)	6.8	8.0	7.3	7.5	7.6
판매비	112	148	147	154	164
판매비율(%)	3.9	4.5	4.1	3.9	3.8
영업이익	80	115	115	142	160
증가율(%)	65.7	44.3	0.2	23.2	12.6
영업이익률(%)	2.8	3.5	3.2	3.6	3.7
순금융손익	-15	-51	-59	-33	-31
이자손익	-21	-15	-24	-26	-26
기타	6	-36	-35	-7	-5
기타영업외손익	1	12	0	15	8
중속/관계기업손익	0	-1	0	0	0
세전이익	65	76	56	125	137
법인세	-6	2	10	19	22
법인세율	-9.2	2.6	17.9	15.2	16.1
계속사업이익	72	74	46	105	115
중단사업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72	74	46	105	115
증가율(%)	229.2	3.2	-38.1	129.1	9.0
당기순이익률 (%)	2.5	2.2	1.3	2.6	2.7
지배주주당기순이익	71	70	37	95	101
기타포괄이익	0	9	2	0	0
총포괄이익	72	83	48	105	115
EBITDA	103	144	152	176	192
증가율(%)	34.7	39.7	5.2	16.2	8.7
EBITDA마진율(%)	3.6	4.4	4.2	4.4	4.5

투자지표

(12월 결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주당지표(원)					
EPS	510	409	198	512	544
BPS	6,768	7,901	8,114	8,626	9,170
DPS	0	0	0	0	0
밸류에이션(배)					
PER	17.9	27.3	80.2	31.0	29.2
PBR	1.4	1.4	2.0	1.8	1.7
EV/EBITDA	13.4	13.0	19.0	16.8	15.6
성장성지표(%)					
매출증가율	16.1	15.7	9.7	10.0	8.0
EPS증가율	219.9	-19.9	-51.5	158.6	6.3
수익성지표(%)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ROE	7.8	5.8	2.5	6.1	6.1
ROA	4.1	3.3	1.7	3.5	3.6
ROIC	8.0	7.1	3.7	7.5	7.5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97.1	76.6	84.6	87.4	87.3
순차입금 비율(%)	12.2	-15.1	-6.7	-2.7	-0.9
이자보상배율(배)	3.0	3.7	2.8	3.6	4.1
활동성지표(배)					
매출채권회전율	7.9	7.9	7.3	7.0	7.1
재고자산회전율	6.5	6.2	5.6	5.2	4.9
총자산회전율	1.6	1.5	1.3	1.3	1.3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은 지배주주순이익 및 지배주주지분 기준

재무상태표

(십억원)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유동자산	1,266	1,776	1,897	2,033	2,140
현금및현금성자산	289	333	384	364	343
유가증권	10	271	119	103	111
매출채권	396	441	549	585	632
재고자산	460	597	703	821	920
비유동자산	613	867	954	1,058	1,164
유형자산	482	712	809	901	998
무형자산	11	12	13	12	12
투자자산	36	32	33	34	35
자산총계	1,879	2,643	2,851	3,091	3,304
유동부채	682	920	1,128	1,262	1,35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91	384	404	454	490
단기차입금	165	142	183	205	222
유동성장기부채	20	20	50	50	50
비유동부채	243	226	178	180	181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225	210	160	160	160
부채총계	925	1,147	1,307	1,442	1,540
지배주주지분	937	1,473	1,513	1,608	1,710
자본금	124	186	186	186	186
자본잉여금	756	1,154	1,154	1,154	1,154
자본조정등	-169	-169	-169	-169	-16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92	-83	-80	-80	-80
이익잉여금	317	385	422	517	619
비지배주주지분	17	23	31	41	54
자본총계	953	1,496	1,544	1,649	1,764
비이자부채	510	768	907	1,020	1,101
총차입금	415	379	400	422	439
순차입금	116	-226	-103	-44	-15

현금흐름표

(십억원)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영업활동 현금흐름	31	7	5	29	35
당기순이익	72	74	46	105	115
비현금성 비용 및 수익	47	57	104	52	55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3	29	36	34	31
무형자산상각비	1	0	0	0	0
운전자본변동	-64	-97	-124	-103	-108
매출채권등의 감소	-69	-18	-121	-36	-47
재고자산의 감소	-42	-124	-110	-118	-99
매입채무등의 증가	29	80	27	50	36
기타 영업현금흐름	-24	-27	-21	-25	-27
투자활동 현금흐름	-57	-387	23	-141	-119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26	-129	-129	-126	-128
유형자산의 감소	2	0	1	0	0
무형자산의 감소(증가)	-2	-1	0	0	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4	-256	166	-1	-1
기타	73	-1	-15	-14	10
재무활동 현금흐름	97	411	29	92	64
차입금의 증가(감소)	35	5	0	0	0
자본의 증가	0	459	0	0	0
기타	62	-53	29	92	64
기타 및 조정	1	13	-7	0	-1
현금의 증가	72	44	50	-20	-21
기초현금	217	289	333	384	364
기말현금	289	333	384	364	343

매수 (신규)

목표주가 53,000원
현재가 (9/18) 39,2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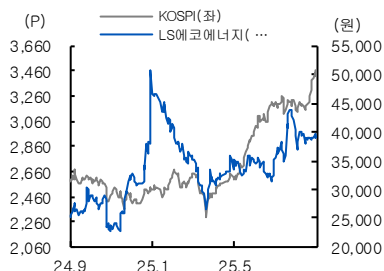
KOSPI (9/18) 3,461.30pt
시가총액 1,202십억원
발행주식수 30,625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50,800원
최저가 22,650원
60일 일평균거래대금 7십억원
외국인 지분율 4.4%
배당수익률 (2024F) 0.8%

주주구성
LS전선 외 11 인 69.68%
국민연금공단 6.04%

주가상승률	1M	6M	12M
상대기준	-11%	-17%	19%
절대기준	-3%	10%	60%

	현재	직전	변동
투자의견	매수	-	-
목표주가	53,000	-	-
EPS(24)	1,480	-	-
EPS(25)	1,668	-	-

LS에코에너지 상대주가 (%)



LS에코에너지 (229640)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계획

LS-VINA 호조로 실적 개선 가속화 전망

1H25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786억원(+16.0% yoy), 389억원(+59.4% yoy)을 기록했다. 베트남 경기 회복과 북미 지중 배전용 케이블 수출 호조에 힘입어 LS-VINA 매출은 21.1%(yoy), 영업이익은 85.7%(yoy) 개선됐다. 제품별로는 초고압(+70.4%), 배전(+34.0%), 소재(+10.6%) 등 전 부문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며, LSCV 또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세를 나타냈다.

2H25 연결 매출액은 4,945억원(+8.3% yoy), 영업이익은 301억원(+47.8% yoy)으로 추정된다. LS-VINA는 덴마크 초고압케이블 수출 증가와 베트남 내수 초고압케이블 수요 확대의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베트남 내 초고압 케이블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하며, 추가 투자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LSCV는 북미 통신용 케이블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사양 제품 교체 수요로 마진율 상승이 예상된다. 관세 이슈가 존재하나 고객사와 협의를 통해 판가에 반영하고 있어 우려는 제한적이다.

해저 HVDC 케이블 공장 설립 및 희토류 신사업 계획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3,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 국영 에너지 기업(Petro Vietnam)과 합작으로 해저 HVDC 케이블 전용 공장 설립 추진을 발표했다. 베트남은 2035년까지 해상풍력 17GW, 2050년까지 90GW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사는 베트남 전선 시장 1위 지위를 기반으로 베트남이 동남아 해상풍력 중심지로 부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투자 결정 및 착공, 2029~30년 제품이 양산될 전망이다.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으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영국 내 해저 케이블 공장 설립도 검토 중이며, 광산에서 희토류 산화물을 공급받아 트레이딩 또는 자체 금속화하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단위:십억원,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731	869	973	1,090	1,330
영업이익	29	45	69	79	98
세전이익	9	48	69	78	97
지배주주순이익	4	31	45	51	64
EPS(원)	135	1,020	1,480	1,668	2,088
증가율(%)	-315.5	656.4	45.1	12.7	25.2
영업이익률(%)	4.0	5.2	7.1	7.2	7.4
순이익률(%)	0.5	4.0	5.2	5.3	5.4
ROE(%)	2.8	19.0	23.4	22.7	23.5
PER	155.0	30.4	26.5	23.5	18.8
PBR	4.4	5.2	5.9	4.9	4.0
EV/EBITDA	21.0	21.1	17.3	15.3	12.5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표 22. LS에코에너지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E	4Q25E	2024	2025E	2026E
매출액	179.9	232.6	223.4	233.1	228.3	250.2	243.0	251.5	869.0	973.1	1,089.7
지주	0.1	10.0	0.1	0.1	0.9	14.0	0.1	0.1	10.3	15.1	18.4
LS-VINA	172.6	237.5	225.4	231.5	236.8	259.9	248.6	251.1	866.9	996.4	1,102.5
LSCV	62.6	68.1	73.7	68.2	61.4	72.0	79.3	79.0	272.6	291.6	324.1
LSGM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조정	-55.4	-82.9	-75.8	-66.7	-70.8	-95.6	-85.0	-78.7	-280.9	-330.1	-355.3
YoY	2.0%	24.2%	33.4%	16.6%	26.9%	7.6%	8.8%	7.9%	18.9%	12.0%	12.0%
LS-VINA	-1.4%	29.2%	36.3%	15.3%	37.2%	9.4%	10.3%	8.5%	19.6%	14.9%	10.6%
LSCV	26.0%	26.0%	36.0%	13.1%	-1.8%	5.8%	7.5%	15.7%	24.9%	7.0%	11.1%
매출원가	164.2	211.0	205.0	217.2	204.4	219.3	218.4	231.4	797.4	873.5	975.1
YoY	0.6%	19.5%	36.3%	18.0%	24.5%	3.9%	6.5%	6.5%	18.2%	9.5%	11.6%
% COGS	91.3	90.7	91.8	93.2	89.5	87.6	89.9	92.0	91.8	89.8	89.5
매출총이익	15.7	21.6	18.4	15.9	23.9	31.0	24.5	20.1	71.5	99.5	114.6
YoY	19.4%	101.2%	7.8%	0.6%	52.8%	43.3%	33.7%	26.5%	26.2%	39.2%	15.1%
% GPM	8.7	9.3	8.2	6.8	10.5	12.4	10.1	8.0	8.2	10.2	10.5
판매관리비	6.0	6.9	5.8	8.1	8.6	7.4	6.8	7.8	26.8	30.6	35.3
YoY	-24.0%	43.3%	-2.6%	-5.5%	44.1%	7.1%	17.2%	-3.9%	-1.6%	14.2%	15.4%
% SG&A	3.3	3.0	2.6	3.5	3.8	2.9	2.8	3.1	3.1	3.1	3.2
영업이익	9.7	14.7	12.5	7.8	15.3	23.6	17.7	12.3	44.8	69.0	79.3
지주	-0.3	9.5	-0.4	-0.3	0.4	13.6	-0.4	-0.4	8.5	13.1	16.1
LS-VINA	7.1	9.9	9.2	9.2	11.7	19.9	15.2	13.8	35.4	60.5	70.7
LSCV	3.2	4.8	4.2	-0.4	4.4	4.5	4.2	-0.2	11.8	12.9	15.9
LSGM	-0.3	-0.2	-0.2	-0.2	-0.2	-0.2	-0.2	-0.2	-0.9	-0.7	-0.7
조정	0.0	-9.2	-0.3	-0.5	-0.9	-14.2	-1.0	-0.7	-10.0	-16.9	-22.7
YoY	84.0%	147.9%	13.5%	8.0%	58.1%	60.2%	41.3%	58.2%	51.8%	54.1%	15.0%
LS-VINA	15.5%	26.6%	-26.1%	22.9%	65.5%	100.0%	65.6%	49.5%	4.5%	71.0%	16.8%
LSCV	645.6%	흑전	흑전	적전	35.3%	-5.0%	0.3%	적지	흑전	10.1%	23.1%
% OPM	5.4	6.3	5.6	3.3	6.7	9.4	7.3	4.9	5.2	7.1	7.3
LS-VINA	4.1	4.2	4.1	4.0	4.9	7.6	6.1	5.5	4.1	6.1	6.4
LSCV	5.2	7.0	5.7	-0.6	7.1	6.3	5.3	-0.2	4.3	4.4	4.9

자료: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주: 2015년 설립된 LSGM(LS-Gaon Cable Myanmar Co.,Ltd)는 2021년 미얀마 군 쿠데타 이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공장 운영 최소화

그림 59.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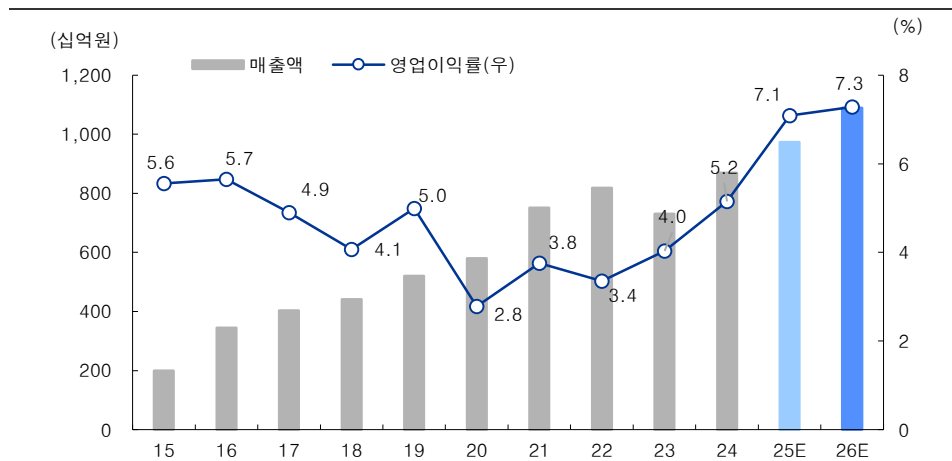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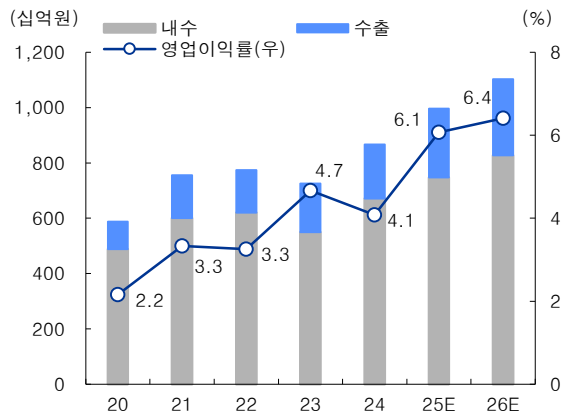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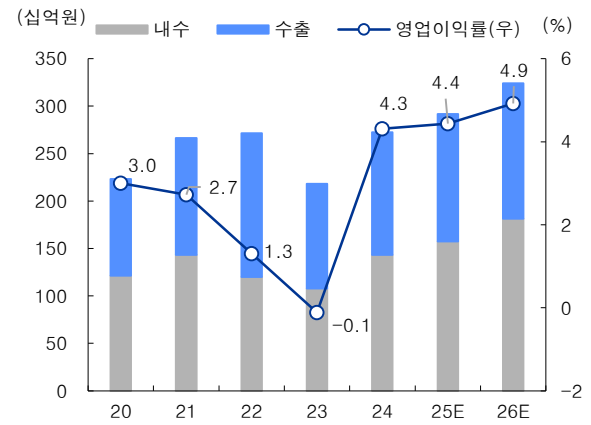


그림 60. LS-VINA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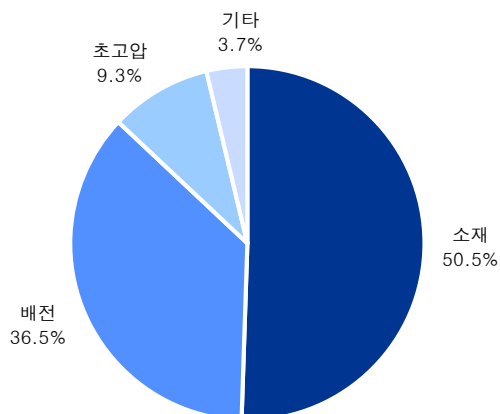
자료: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그림 61. LSCV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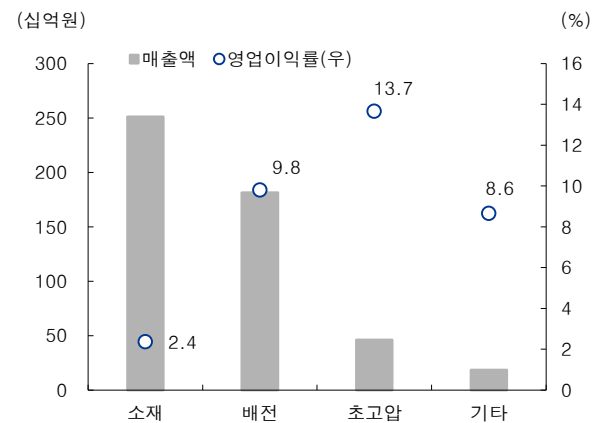
자료: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그림 62. LS-VINA 제품별 매출 비중 (1H25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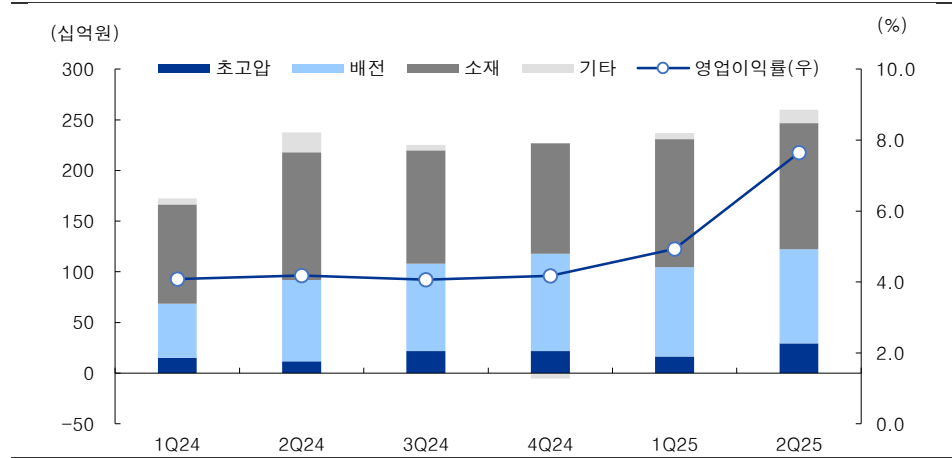
자료: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그림 63. LS-VINA 제품별 매출 및 영업이익진을 (1H25 기준)



자료: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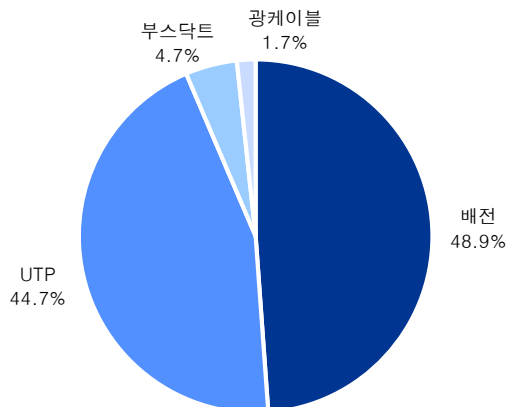
그림 64. LS-VINA 분기별 실적 추이



자료: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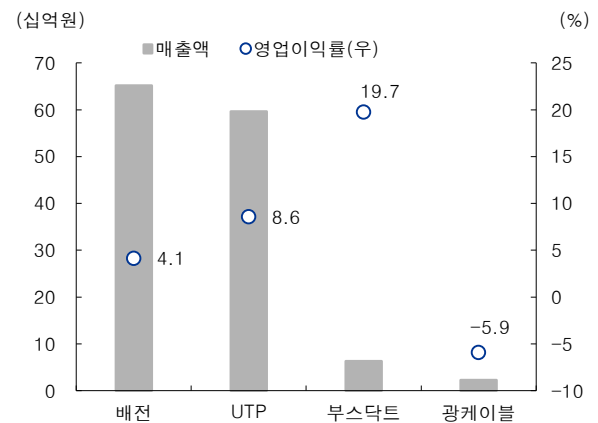
주: 버스덕트(Bus Duct)는 굵은 전력 케이블 대신 금속 덕트 안에 구리나 알루미늄 도체를 넣어 만든 모듈형 전력 배선 시스템

그림 65. LSCV 제품별 매출 비중 (1H25 기준)



자료: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그림 66. LSCV 제품별 매출 및 영업마진율 (1H25 기준)



자료: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주: UTP(Unshielded Twisted Pair)는 집이나 회사에서 쓰는 인터넷 랜선 등 통신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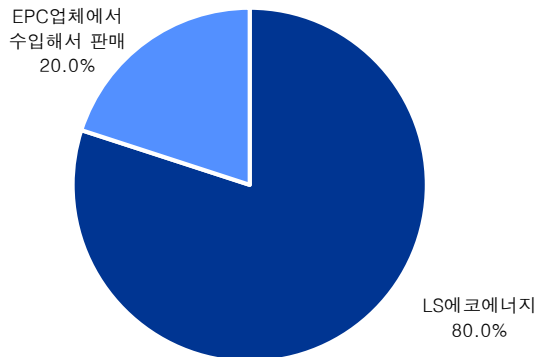
그림 67. LS에코에너지 베트남 사업



자료: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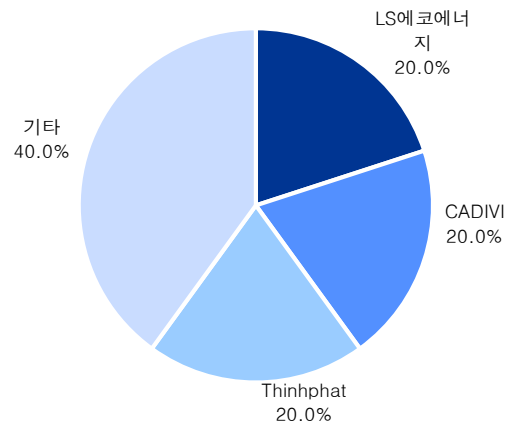
주: 버스덕트(Bus Duct)는 굵은 전력 케이블 대신 금속 덕트 안에 구리나 알루미늄 도체를 넣어 만든 모듈형 전력 배선 시스템

그림 68. 베트남 HV(고압케이블)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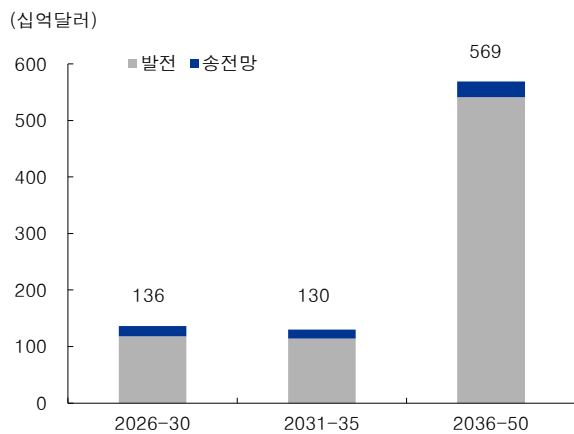
자료: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그림 69. 베트남 MV/LV(중압/저압 케이블)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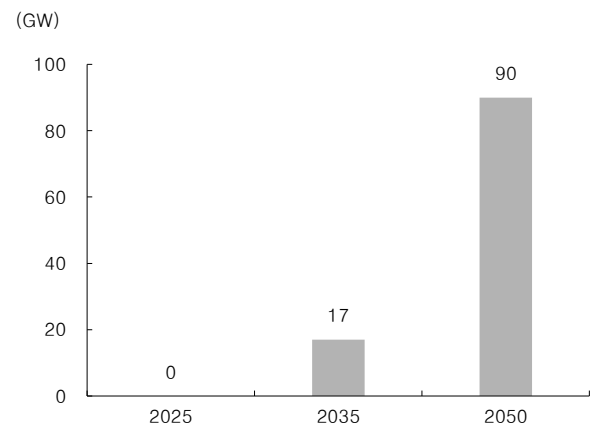
자료: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그림 70. 베트남의 전력 케이블 투자 규모



자료: vietnam-briefing.com,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그림 71. 베트남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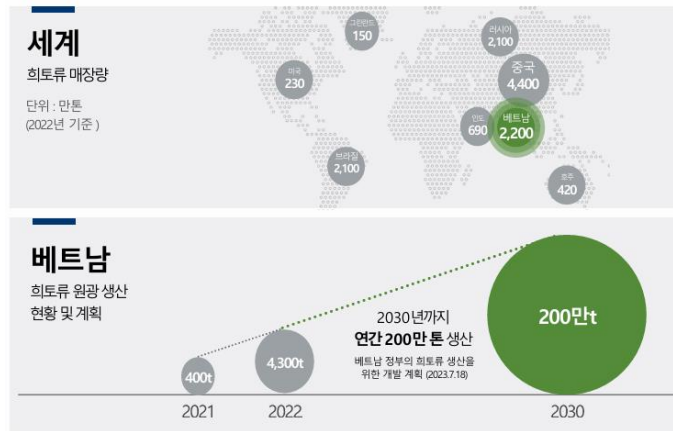
자료: vietnam-briefing.com,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주: 베트남 정부의 제8차 전력개발 계획(PDP8) 조정안 승인(2025.04.15)

그림 72. 베트남 해저케이블 생산 공장 건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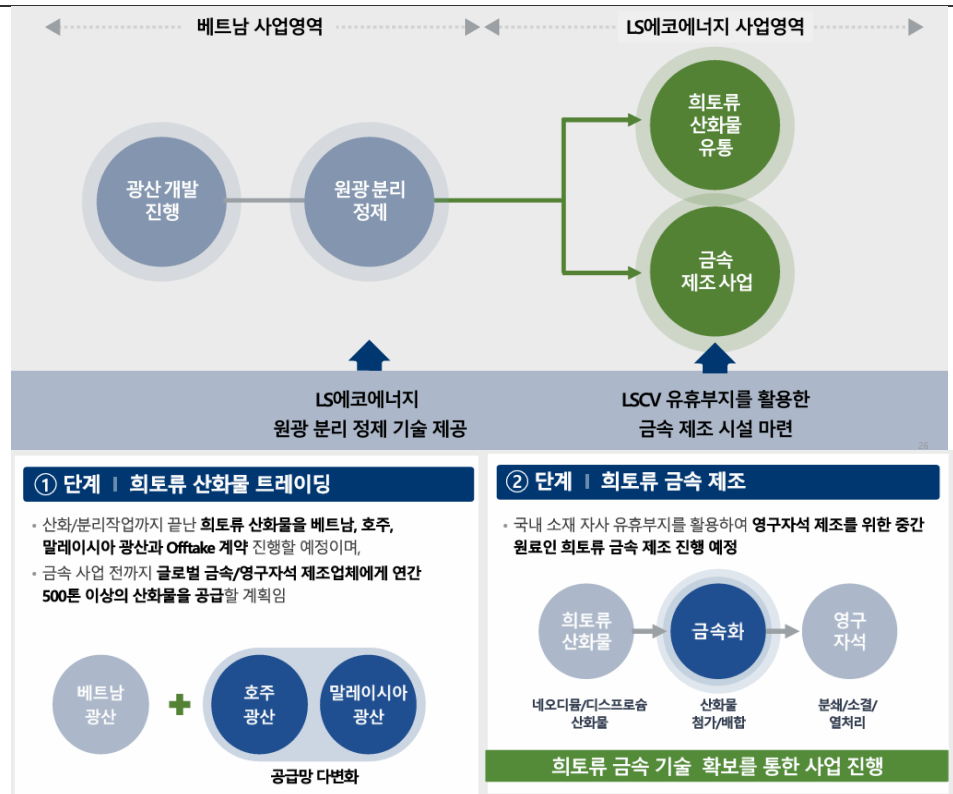
자료: LS에코에너지, IBK투자증권

그림 73. 베트남,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



자료: LSC에너지, IBK투자증권

그림 74. 베트남과 희토류 사업 협력



자료: LSC에너지, IBK투자증권

주: 광산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어, 광산에서 희토류 산화물을 공급받으면 트레이딩 혹은 내재화하여 금속화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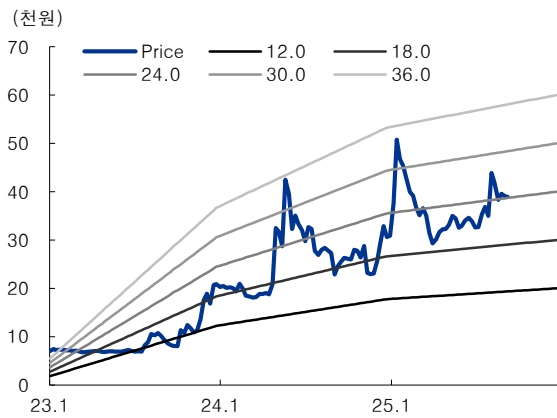
표 23. LS에코에너지 적정주가(목표주가) 산출

구분	내용	비고
12M Forward EPS	1,621원	12M Forward EPS 적용
Target PER	32.7배	과거 5개년(2020~24) 동안 각 년도 PER 배수 평균치의 평균
적정주가	53,059원	12M Forward EPS x Target PER
목표주가	53,000원	신규 제시
현재주가	39,250원	(2025.09.18 종가 기준)
상승여력	35.0%	

자료: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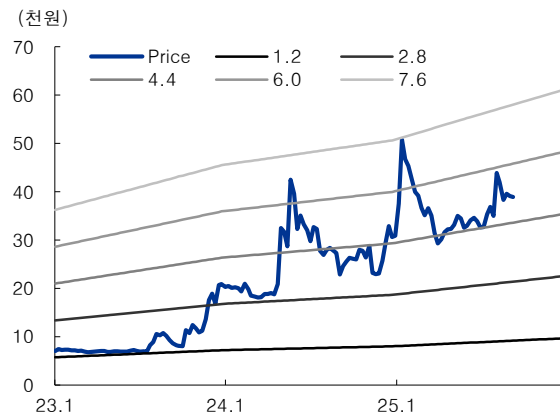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한 2022년은 Target PER 과거 5개년(2020-24)에서 제외함

그림 75. LS에코에너지 Fwd PER 밴드차트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76. LS에코에너지 Fwd PBR 밴드차트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LS에코에너지 (229640)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731	869	973	1,090	1,330
증가율(%)	-10.7	18.9	12.0	12.0	22.1
매출원가	674	797	874	975	1,189
매출총이익	57	72	100	115	142
매출총이익률 (%)	7.8	8.3	10.3	10.6	10.7
판매비	27	27	31	35	43
판매비율(%)	3.7	3.1	3.2	3.2	3.2
영업이익	29	45	69	79	98
증가율(%)	7.4	51.8	54.1	15.0	24.0
영업이익률(%)	4.0	5.2	7.1	7.2	7.4
순금융손익	-12	-6	-4	-3	-3
이자손익	-12	-6	-4	-3	-3
기타	0	0	0	0	0
기타영업외손익	-9	10	4	2	1
종속/관계기업손익	0	0	0	0	0
세전이익	9	48	69	78	97
법인세	4	13	17	20	24
법인세율	44.4	27.1	24.6	25.6	24.7
계속사업이익	4	35	51	58	72
중단사업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	35	51	58	72
증가율(%)	-146.9	725.5	45.3	12.6	25.3
당기순이익률 (%)	0.5	4.0	5.2	5.3	5.4
지배주주당기순이익	4	31	45	51	64
기타포괄이익	0	14	-20	0	0
총포괄이익	5	49	31	58	72
EBITDA	37	52	75	85	103
증가율(%)	5.9	39.9	45.1	12.1	21.8
EBITDA마진율(%)	5.1	6.0	7.7	7.8	7.7

투자지표

(12월 결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주당지표(원)					
EPS	135	1,020	1,480	1,668	2,088
BPS	4,747	5,989	6,661	8,031	9,763
DPS	200	200	300	360	420
밸류에이션(배)					
PER	155.0	30.4	26.5	23.5	18.8
PBR	4.4	5.2	5.9	4.9	4.0
EV/EBITDA	21.0	21.1	17.3	15.3	12.5
성장성지표(%)					
매출증가율	-10.7	18.9	12.0	12.0	22.1
EPS증가율	-315.5	656.4	45.1	12.7	25.2
수익성지표(%)					
배당수익률	1.0	0.6	0.8	0.9	1.1
ROE	2.8	19.0	23.4	22.7	23.5
ROA	0.9	7.9	10.8	12.1	14.0
ROIC	1.5	12.0	16.7	18.7	21.2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162.5	148.1	110.5	84.4	64.5
순차입금 비율(%)	84.0	68.5	41.6	24.6	16.4
이자보상배율(배)	2.3	6.4	11.6	15.2	18.1
활동성지표(배)					
매출채권회전율	4.6	5.6	5.9	6.5	7.4
재고자산회전율	5.0	6.2	6.4	7.1	7.9
총자산회전율	1.6	1.9	2.0	2.3	2.6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은 지배주주순이익 및 지배주주지분 기준

재무상태표

(십억원)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유동자산	308	385	368	402	445
현금및현금성자산	24	31	24	29	28
유가증권	0	4	19	23	29
매출채권	136	174	158	176	183
재고자산	129	153	151	155	183
비유동자산	100	104	93	93	97
유형자산	48	48	41	38	38
무형자산	34	37	35	35	34
투자자산	0	0	0	0	0
자산총계	408	489	462	495	543
유동부채	247	284	236	219	20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6	69	55	59	58
단기차입금	154	168	133	117	110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6	8	6	7	8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부채총계	253	292	242	226	213
지배주주지분	145	183	204	246	299
자본금	15	15	15	15	15
자본잉여금	90	90	90	90	90
자본조정등	-2	-2	-2	-2	-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5	18	0	0	0
이익잉여금	37	62	101	143	196
비지배주주지분	10	14	15	22	31
자본총계	156	197	219	268	330
비이자부채	98	122	107	107	102
총차입금	155	170	135	119	111
순차입금	131	135	91	66	54

현금흐름표

(십억원)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영업활동 현금흐름	38	19	39	44	42
당기순이익	4	35	51	58	72
비현금성 비용 및 수익	33	24	14	6	6
유형자산감가상각비	7	7	6	5	4
무형자산상각비	1	1	1	0	0
운전자본변동	18	-29	-11	-17	-34
매출채권등의 감소	48	-24	-2	-17	-7
재고자산의 감소	34	-13	-13	-4	-28
매입채무등의 증가	-58	7	-10	4	0
기타 영업현금흐름	-17	-11	-15	-3	-2
투자활동 현금흐름	-4	-4	-20	-12	-19
유형자산의 증가(CAPEX)	-3	-2	-3	-2	-4
유형자산의 감소	0	1	0	0	0
무형자산의 감소(증가)	0	0	0	0	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0	0
기타	-1	-3	-17	-10	-15
재무활동 현금흐름	-35	-7	-26	-27	-24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기타	-35	-7	-26	-27	-24
기타 및 조정	0	-1	0	0	0
현금의 증가	-1	7	-7	5	-1
기초현금	25	24	31	24	29
기말현금	24	31	24	29	28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가 (9/18) 24,5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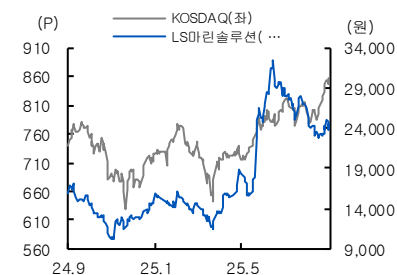
KOSDAQ (9/18) 857.11pt
시가총액 1,282십억원
발행주식수 52,239천주
액면가 1,000원
52주 최고가 32,450원
최저가 10,137원
60일 일평균거래대금 7십억원
외국인 지분율 2.6%
배당수익률 (2024F) 1.1%

주주구성
LS전선 67.82%

주가상승률	1M	6M	12M
상대기준	-14%	47%	35%
절대기준	-7%	69%	58%

	현재	직전	변동
투자 의견	Not Rated	-	-
목표주가	-	-	-
EPS(23)	0	-	-
EPS(24)	405	-	-

LS마린솔루션 상대주가 (%)



LS마린솔루션 (060370)

그룹 시너지 기반의 견조한 성장 스토리

상반기, 기저효과와 LS빌드윈 편입으로 큰 폭 성장

1H25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115억원(+114.2% yoy), 64억원(+107.0% yoy)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자회사로 편입된 LS빌드윈(지중 케이블 시공·유지보수) 실적 반영과 1Q24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 관련 시행착오 비용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상반기 LS빌드윈의 매출은 774억원으로, 연결 매출의 69.5%를 차지했다. 현재 해저케이블 수주잔고는 1,680억원(영광안마 프로젝트 940억원 포함), 지중케이블은 5,568억원임을 고려하면 당분간 지중케이블의 실적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실적 기대감은 낮지만

2H25 연결 매출액은 1,129억원(+44.2% yoy), 영업이익은 71억원(-24.0% yoy)으로 추정된다. 본업인 해저케이블 부문은 지난 3월 케이블 설치용 바지선(GL2030)의 개조 작업에 착수하면서 내년 5월까지 실적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번 개조는 케이블 적재 중량을 기존 4,000톤에서 7,000톤으로 확대하는 작업으로, 영광안마(완공 예정: 2029년 1월, 수주금액: 940억원), 신한우이(2028년 9월 완공 예정), 충남태안(2029년 9월 완공 예정) 등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입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회사 LS빌드윈은 하반기 매출 741억원, 영업이익 35억원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성장 여력은 높아

2030년까지 총 14.3GW, 12조원 규모(자재 4.8조원+포설·시공 7.2조원)의 해상풍력 건설이 계획되어 있고, 총사업비 11조원의 서해안 HVDC에너지 고속도로사업(2026-38년)에서는 최대 3조원의 해저케이블 포설·시공 매출이 기대된다. 더욱이 초대형 포설선(케이블 적재 중량 13,000톤) 건조가 완료되는 2028년 3월 이후에는, 건설중인 LS전선의 미국 해저케이블 공장의 양산 시점과 맞물려 북미 중심의 글로벌 해저 전력망·통신망 프로젝트 참여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십억원,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0	130	224	265	318
영업이익	0	12	13	16	19
세전이익	0	17	15	19	24
지배주주순이익	0	13	12	15	19
EPS(원)	0	405	274	287	357
증가율(%)	0.0	0.0	-32.4	4.8	24.3
영업이익률(%)	0	9.2	5.8	6.0	6.0
순이익률(%)	0	10.0	5.4	5.7	6.0
ROE(%)	0.0	6.3	5.3	6.3	7.5
PER	0.0	32.0	89.6	85.4	68.8
PBR	0.0	2.3	5.5	5.3	5.1
EV/EBITDA	0.0	19.1	55.3	50.8	43.3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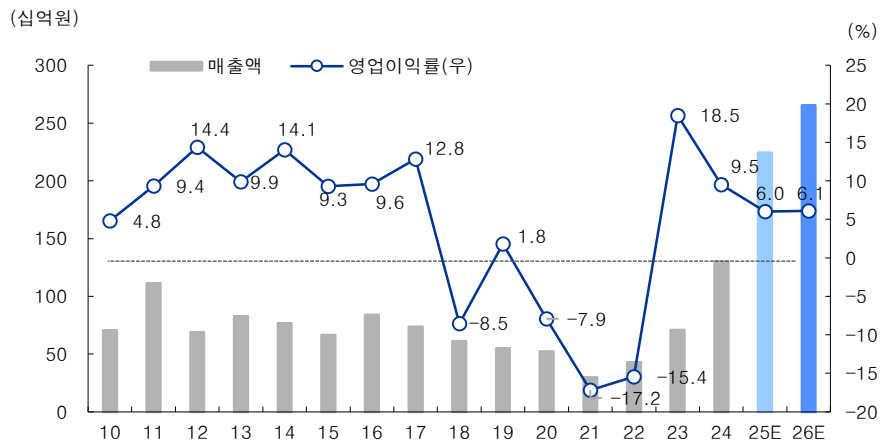
표 24. LS마린솔루션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E	4Q25E	2024	2025E	2026E
매출액	13.7	38.4	37.4	40.9	44.5	67.0	61.6	51.2	130.3	224.3	265.4
해저케이블	13.7	38.4	37.4	20.6	14.1	19.9	20.3	18.4	110.0	72.8	103.9
지중케이블	-	-	-	20.3	30.3	47.1	41.3	32.8	20.3	151.5	161.4
YoY	59.4%	113.8%	86.0%	69.1%	225.3%	74.6%	65.0%	25.3%	84.1%	72.2%	18.3%
해저케이블	59.4%	113.8%	86.0%	-14.9%	3.4%	-48.1%	-45.6%	-10.4%	55.4%	-33.8%	42.8%
지중케이블	-	-	-	-	-	-	-	61.5%	-	646.0%	6.5%
매출원가	15.6	32.1	28.8	37.0	39.2	61.2	53.7	46.3	113.5	200.3	236.5
YoY	186.2%	177.4%	103.3%	88.8%	151.7%	90.5%	86.5%	25.1%	123.5%	76.5%	18.0%
% COGS	113.9	83.8	77.1	90.5	88.1	91.4	87.1	90.3	87.1	89.3	89.1
매출총이익	-1.9	6.2	8.6	3.9	5.3	5.8	7.9	5.0	16.8	24.0	28.9
YoY	적전	-2.0%	44.8%	-15.0%	흑전	-7.3%	-7.3%	27.5%	-16.0%	42.8%	20.4%
% GPM	-13.9	16.2	22.9	9.5	11.9	8.6	12.9	9.7	12.9	10.7	10.9
판매관리비	0.9	0.3	1.3	1.8	2.3	2.4	3.5	2.4	4.4	10.5	12.7
YoY	-40.8%	-68.2%	-26.9%	-28.9%	140.5%	736.0%	157.4%	30.5%	-36.2%	137.8%	21.1%
% SG&A	6.9	0.7	3.6	4.5	5.1	3.5	5.6	4.7	3.4	4.7	4.8
영업이익	-2.8	5.9	7.2	2.1	3.0	3.4	4.5	2.6	12.4	13.5	16.2
YoY	적전	8.7%	77.1%	3.1%	흑전	-42.6%	-37.8%	24.8%	-5.3%	8.9%	19.9%
% OPM	-20.8	15.5	19.4	5.0	6.8	5.1	7.3	5.0	9.5	6.0	6.1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그림 77. 연결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주: LS빌드윈 종속회사로 편입(2024년 10월)에 따라 2024년부터 연결실적으로 반영

표 25. 운용중인 케이블 선박 제원

선명	특징
	선명 케이블선, SEGERO 선급 KRS1-작업선(Work Vessel), KRM1-UMA, IS4, DPS-1, 케이블 부설선(Cable Layer) 건조 연도 1998년 4월, 한국 부산 (조선소: 한진중공업) 모항 대한민국 거제 총 승선 인원 62명 전장/선폭/총톤수 115.380m/20.000m/8,323톤 케이블 탱크 메인탱크 2기: 직경 16m, 코일 적재 용량 3,630.8m³ 예비탱크 2기: 직경 6.75m, 코일 적재 용량 601.2m³
	선명 다목적 해양지원 · 케이블 부설선, M/V MIRAERO 선급 ABS +A1(E), 예인선(Towing Vessel), 소방선 1급(Fire Fighting Vessel Class 1), 해양지원선(AH), AMS, DPS-2, KRS1 - 작업선, 케이블 부설선, 환경 인증(AFS, IOPP, ISPP, IAPP), CHA LI, KRM1 - DPS(2) 건조 연도 2008년 2월, 인도네시아 바탐 모항 대한민국 거제 총 승선 인원 52명 전장/선폭/총톤수 70.05m/14.95m/1,999톤
	선명 케이블 부설 바지선, GL 2030 선급 Bureau Veritas (BV) - H-Hull-Mach Special Service (Cable Laying), 자항 장치 없음(No Propulsion), +Dynapos AM/AT R (DP2) 건조 연도 2010년 개조 연도 2021년 선적항 부산 총 승선 인원 60명 전장/선폭/총톤수 92.5m/36.0m/dir 8,030톤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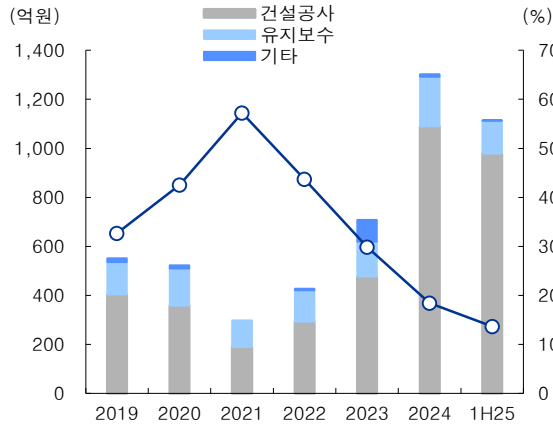
그림 78. 건조중인 신규 해저케이블 포설선 (2028년 상반기 운항 예정)

■ 선적 용량 **13,000 톤** ■ 제원 **140m x 30m x 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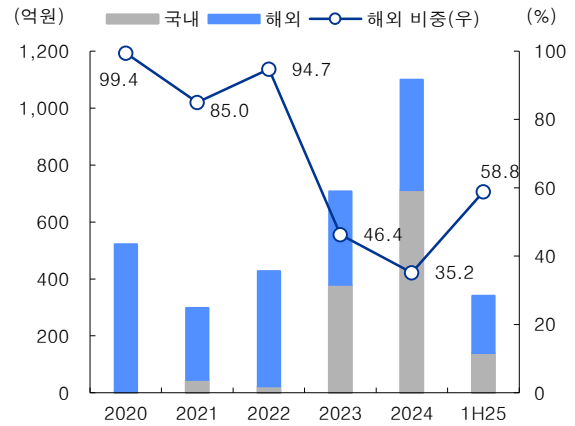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그림 79. 부문별 매출 추이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주: 2024년부터 연결실적 반영

그림 80. 해저케이블 국내외 매출 추이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주: 2024년부터 연결실적 반영

그림 81. 주요 국내 해상풍력 및 해상그리드 시공 실적

전남해상풍력 1단지		제주 2연계 HVDC	
	위치	제주~전남 진도 지역	
	발주처	한국전력공사	
	시공길이	106km	
	일정	2009년(착공) ~ 2012년	
제주 3연계 HVDC		제주 3연계 HVDC	
위치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상	위치	제주~전남 완도 지역
개발사	전남해상풍력(주) (JOWP)	발주처	한국전력공사
발전용량	96MW	시공길이	89km
일정	2022년(착공) ~ 2025년(상업운전 개시)	일정	2023년(착공) ~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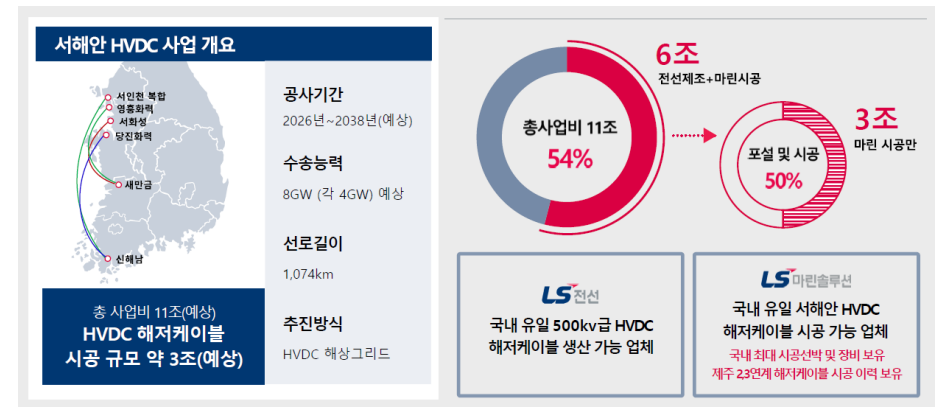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그림 82. 수주 및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국내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

영광 안마 1·2 해상풍력		태안 해상풍력	
위치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근	위치	충남 태안군 서해상
개발사	안마해상풍력(주) (Equis 싱가포르)	개발사	태안해상풍력(주) (VenaEnergy 싱가포르+CIP 덴마크)
발전용량	532MW	발전용량	504MW
일정	2027년 (착공예정) ~ 2028년 (상업운전 개시)	일정	2028년 (착공예정) ~ 2029년 (상업운전 개시)
총사업비	약 4조원 (추정)	총사업비	약 3조원 (추정)
신안 우이 해상풍력		신안 해상 1·3 해상풍력	
위치	전남 신안군 우이도 인근	위치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개발사	한화오션(주) (한화건설 영도)	개발사	해상해상풍력(주) (CIP/COP 덴마크)
발전용량	396MW	발전용량	1GW
일정	2027년 (착공예정) ~ 2028년 (상업운전 개시)	일정	2030년 (착공예정) ~ 2031년 (상업운전 개시)
총사업비	약 25조원 (추정)	총사업비	약 6조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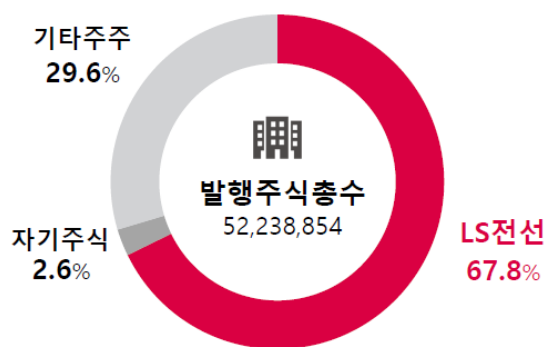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주: 2025.07.07 안마해상풍력 940억원 수주

그림 83.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수주 확보 준비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그림 84. 주주현황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그림 85. 지배구조



자료: LS마린솔루션, IBK투자증권

LS마린솔루션 (060370)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3	2024	2025F	2026F	2027F
매출액	0	130	224	265	318
증가율(%)	na	na	72.2	18.3	19.8
매출원가	0	113	200	237	283
매출총이익	0	17	24	28	35
매출총이익률 (%)	0	13.1	10.7	10.6	11.0
판매비	0	4	10	13	15
판매비율(%)	0	3.1	4.5	4.9	4.7
영업이익	0	12	13	16	19
증가율(%)	na	na	8.9	15.7	23.3
영업이익률(%)	0	9.2	5.8	6.0	6.0
순금융손익	0	4	0	4	5
이자손익	0	2	3	4	4
기타	0	2	-3	0	1
기타영업외손익	0	1	1	0	0
중속/관계기업손익	0	0	0	0	0
세전이익	0	17	15	19	24
법인세	0	4	3	4	5
법인세율	na	23.5	20.0	21.1	20.8
계속사업이익	0	13	12	15	19
중단사업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0	13	12	15	19
증가율(%)	na	na	-11.7	28.8	24.3
당기순이익률 (%)	0	10.0	5.4	5.7	6.0
지배주주당기순이익	0	13	12	15	19
기타포괄이익	0	0	0	0	0
총포괄이익	0	13	12	15	19
EBITDA	0	21	21	23	27
증가율(%)	na	na	-0.8	9.1	16.7
EBITDA마진율(%)	0	16.2	9.4	8.7	8.5

투자지표

(12월 결산)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주당지표(원)					
EPS	0	405	274	287	357
BPS	0	5,543	4,486	4,638	4,859
DPS	139	139	139	139	139
밸류에이션(배)					
PER	0.0	32.0	89.6	85.4	68.8
PBR	0.0	2.3	5.5	5.3	5.1
EV/EBITDA	0.0	19.1	55.3	50.8	43.3
성장성지표(%)					
매출증가율	0.0	0.0	72.2	18.3	19.8
EPS증가율	0.0	0.0	-32.4	4.8	24.3
수익성지표(%)					
배당수익률	1.5	1.1	0.6	0.6	0.6
ROE	0.0	6.3	5.3	6.3	7.5
ROA	0.0	5.2	4.4	5.2	6.0
ROIC	0.0	10.9	10.0	12.9	15.2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0.0	22.2	19.8	24.1	26.6
순차입금 비율(%)	na	-37.5	-49.6	-47.1	-47.2
이자보상배율(배)	0.0	560.9	70.6	88.9	118.3
활동성지표(배)					
매출채권회전율	0.0	0.0	7.1	8.2	8.1
재고자산회전율	0.0	0.0	165.9	213.8	210.4
총자산회전율	0.0	0.0	0.8	0.9	1.0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은 지배주주순익 및 지배주주지분 기준

재무상태표

(십억원)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유동자산	0	164	190	210	231
현금및현금성자산	0	78	118	117	123
유가증권	0	1	0	0	0
매출채권	0	35	28	36	42
재고자산	0	2	1	1	2
비유동자산	0	91	91	91	91
유형자산	0	77	79	78	76
무형자산	0	5	5	5	5
투자자산	0	1	1	1	1
자산총계	0	254	281	301	321
유동부채	0	44	44	56	6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0	7	15	19	21
단기차입금	0	0	2	2	2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0	2	2	2	3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부채총계	0	46	46	58	67
지배주주지분	0	208	234	242	254
자본금	0	33	52	52	52
자본잉여금	0	103	103	103	103
자본조정등	0	-2	-2	-2	-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0	74	81	88	100
비지배주주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0	208	234	242	254
비이자부채	0	45	43	55	64
총차입금	0	1	3	3	3
순차입금	0	-78	-116	-114	-120

현금흐름표

(십억원)	2023	2024	2025F	2026F	2027F
영업활동 현금흐름	0	-7	27	17	22
당기순이익	0	13	12	15	19
비현금성 비용 및 수익	0	7	8	4	3
유형자산감가상각비	0	9	8	7	8
무형자산감각비	0	0	0	0	0
운전자본변동	0	-26	7	-5	-3
매출채권등의 감소	0	1	6	-8	-6
재고자산의 감소	0	0	1	0	0
매입채무등의 증가	0	-9	8	3	3
기타 영업현금흐름	0	-1	0	3	3
투자활동 현금흐름	0	19	10	-19	-14
유형자산의 증가(CAPEX)	0	-9	-9	-6	-6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무형자산의 감소(증가)	0	0	0	0	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1	0	0	0
기타	0	27	19	-13	-8
재무활동 현금흐름	0	31	5	0	-2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35	20	0	0
기타	0	-4	-15	0	-2
기타 및 조정	0	1	-2	1	0
현금의 증가	0	44	40	-1	6
기초현금	0	34	78	118	117
기말현금	0	78	118	117	123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유가증권	계열사	공개매수	IPO	회사채	중대한	M&A
		수량	취득가	취득일	보유여부	발행관련	관계여부	사무취급		지급보증	이해관계	관련
해당 사항 없음												

투자 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 의견 (절대 수익률 기준)			
매수 15% 이상	Trading Buy (중립) 0%~15%	중립 -15%~0%	축소 -15% 이상 하락
업종 투자 의견 (상대 수익률 기준)			
비중 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 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24.07.01~2025.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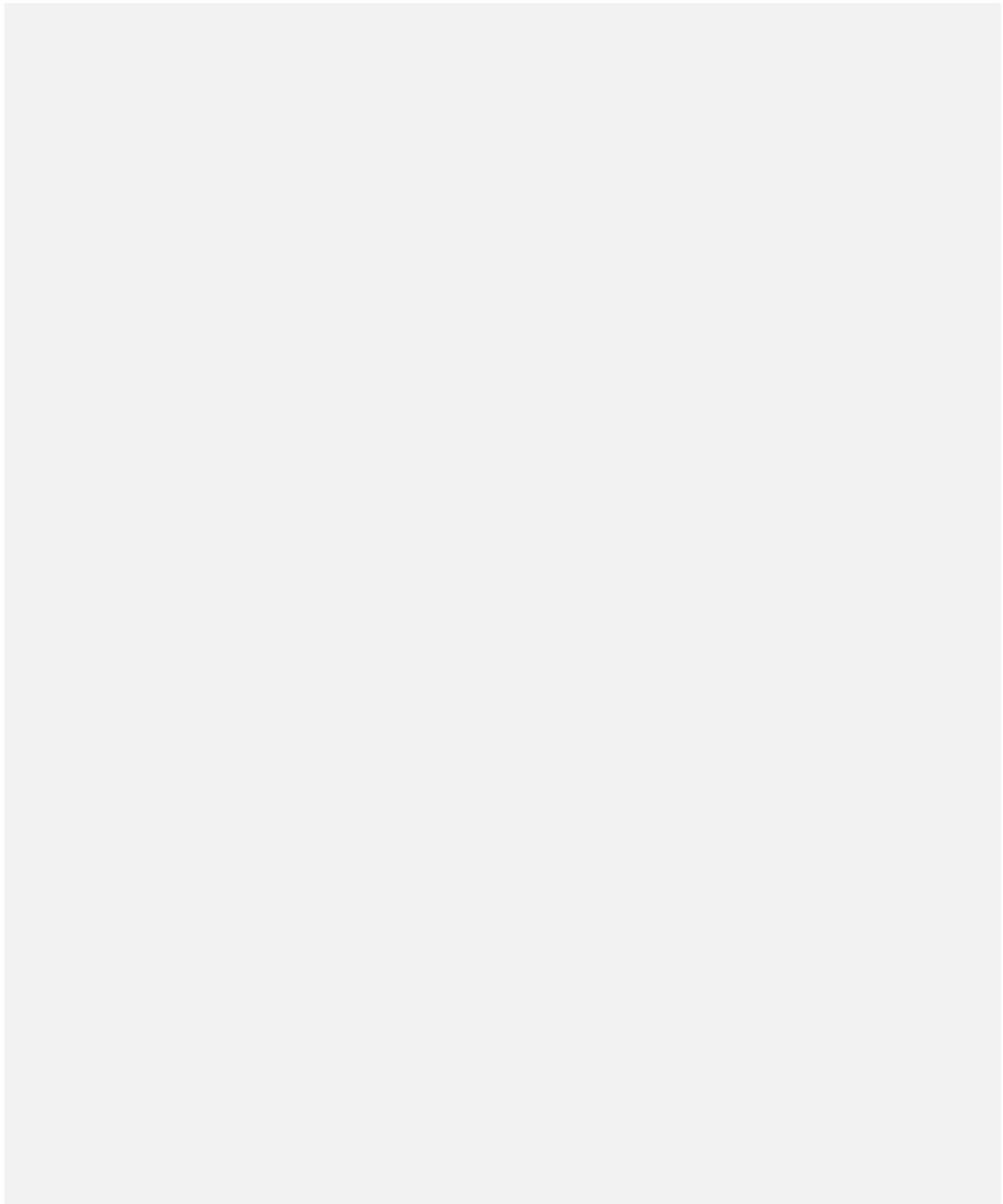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32	89.8
Trading Buy (중립)	11	7.5
중립	4	2.7
매도	0	0

최근 2년간 주가 그래프 및 목표주가(대상 시점 1년) 변동 추이

(▲) 매수, (■) Trading Buy (중립), (●) 중립, (◆) 축소, (■) Not Rated / 담당자 변경

대한전선	추천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5.09.19	매수	22,000		
LS에코에너지	추천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원)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2.12.15	매수	10,000	-12.88	103.00
	2023.12.15	1년경과	10,000	156.38	76.00
	2024.12.15	1년경과	10,000	259.96	164.00
	2025.09.17	담당자 변경			
	2025.09.19	매수	53,000		

Note





IBKS Research Center

성명	직급	담당업종	전화	이메일
용대인	전무(부문장)	총괄	6915-5400	daeinyong@ibks.com
이승훈	상무대우(본부장)	AI/인터넷/게임	6915-5680	dozed@ibks.com

투자분석부

변준호	연구위원	Strategy	6915-5670	ymaezono@ibks.com
정용택	수석 Economist	Economy	6915-5701	ytjeong0815@ibks.com
김인식	연구위원	자산배분/ETF	6915-5472	kds4539@ibks.com
정형주	연구위원	채권/크레딧	6915-5654	hj.jeong@ibks.com
조경진	연구위원	해외주식	6815-5464	ckjins@ibks.com
권순호	연구원	Quant	6915-5667	snowkonn@ibks.com

기간산업분석부

이동욱	연구위원	화학/정유	6915-5671	treestump@ibks.com
남성현	연구위원	유통·식자재/지주	6915-5672	rockrole@ibks.com
김유혁	연구위원	미디어/엔터	6915-5673	yuhyuk.kim@ibks.com
이현욱	연구원	자동차/2차전지	6915-5659	hwle1125@ibks.com
오지훈	연구원	조선/기계	6915-5662	jiihoonoh@ibks.com

혁신기업분석부

이건재	연구위원	소재·부품·장비/스몰캡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김운호	연구위원	IT/반도체	6915-5656	unokim88@ibks.com
김태현	연구위원	음식료/유틸리티/통신	6915-5658	kith0923@ibks.com
정이수	연구위원	제약/바이오	6915-5677	ysjeong306@ibks.com
조정현	연구원	건설/부동산	6915-5660	controlh@ibks.com
강민구	연구원	IT/디스플레이	6915-5473	kmg@ibks.com

“국민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참 좋은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6길 11

대표번호 02-6915-5000

고객지원부 1588-0030, 1544-0050

영업부	02) 6915-2626	IBK WM센터 대구	053) 752-3535
강남센터	02) 2051-5858	IBK WM센터 광주	062) 382-6611
강남역 금융센터	02) 532-0210	IBK WM센터 일산	031) 904-3450
분당센터	031) 705-3600	IBK WM센터 판교	031) 724-2630
IBK WM센터 강남센트럴	02) 556-4999	IBK WM센터 평촌	031) 476-1020
IBK WM센터 목동	02) 2062-3002	IBK WM센터 천안	041) 569-8130
IBK WM센터 도곡	02) 2057-9300	IBK WM센터 부산	051) 741-8810
IBK WM센터 한남동	02) 796-8500	IBK WM센터 창원	055) 282-1650
IBK WM센터 중계동	02) 948-0270	IBK WM센터 울산	052) 271-3050
IBK WM센터 반포자이	02) 3481-6900	IBK WM센터 시화공단	031) 498-7900
IBK WM센터 동부이촌동	02) 798-1030	IBK WM센터 남동산단	032) 822-6200